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rvic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指導教授 崔宗洙

2009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金暎桓

本 論 文 을 金 暎 桓 의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委 員 長 俞 日 善 (印)

委 員 鄭 鴻 悅 (印)

委 員 崔 宗 洙 (印)

2009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3
제 3 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서비스와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5
제 1 절.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5
1.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5
2. 서비스 무역의 개념	7
3.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9
제 2 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11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11
2.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18
3.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27
제 3 장.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37
제 1 절.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의 방법	37
1. 무역특화지수(TSI)	37
2.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38
3. 국제시장점유율(IMS)	40
제 2 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41

1. 운송서비스 부문	42
2. 여행 부문	43
3. 통신 부문	45
4. 건설 부문	46
5. 보험 부문	48
6. 금융 부문	50
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51
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53
9.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54
10. 개인·문화·오락 부문	56
제 3 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57
1.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비교분석	57
2. 국제경쟁력 산출지수 비교	60
3.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63
제 4 장.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70
Abstract	77



〈표 차례〉

표 2-1. 서비스의 분류	6
표 2-2.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7
표 2-3. 서비스의 공급형태	8
표 2-4.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세	12
표 2-5.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7년)	13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14
표 2-7.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15
표 2-8.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2007년)	16
표 2-9.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17
표 2-10.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06년)	18
표 2-11. 한국의 경제활동별 GDP (2000년 기준)	19
표 2-12.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21
표 2-13.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현황 (2003년)	23
표 2-14.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25
표 2-15. 중국의 경제활동별 GDP 현황 (경상가격 기준)	28
표 2-16. 중국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현황	29
표 2-17. 중국의 산업구조별 고용현황	30
표 2-18. 중국의 산업별 고용현황 (1998~2002년)	31
표 2-19. 중국의 산업별 고용현황 (2003~2006년)	33
표 2-20.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35
표 3-1. 연도별 부여 가중치	42
표 3-2. 한·중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2
표 3-3. 한·중·선진 5개국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3
표 3-4. 한·중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4

표 3-5. 한·중·선진 5개국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4
표 3-6. 한·중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5
표 3-7. 한·중·선진 5개국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6
표 3-8. 한·중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7
표 3-9. 한·중·선진 5개국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8
표 3-10. 한·중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49
표 3-11. 한·중·선진 5개국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49
표 3-12. 한·중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0
표 3-13. 한·중·선진 5개국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1
표 3-14. 한·중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2
표 3-15. 한·중·선진 5개국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2
표 3-16. 한·중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3
표 3-17. 한·중·선진 5개국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4
표 3-18. 한·중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5
표 3-19. 한·중·선진 5개국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5
표 3-20. 한·중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6
표 3-21. 한·중·선진 5개국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7
표 3-22. 한·중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58
표 3-23. 한·중·선진 5개국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59
표 3-24. 한·중 서비스 무역 IMS 및 수출증가율 비교	60
표 3-25. 한·중 서비스 무역 TSI 비교	61
표 3-26. 한·중 서비스 무역 RSCA 비교	61
표 3-27. 한·중 서비스 무역 TSI와 RSCA 지수 비교평가	63
표 3-28. 한·중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6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제무역의 확대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경제는 비교우위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분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화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자유화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서비스의 특성상 그 형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무형상품의 특성상 그 교역의 성과를 수치화 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작업이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은 크지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물품에 내재되던 서비스의 기능이 분리되어 그 가치가 상승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원격지간 수요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Business)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제조업에 있어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의 비용절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상 노동이 유일한 투입요소인 서비스의 지식집약도를 높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¹⁾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의 비용절감 효과가 점차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발효 건수는 총 205건이며²⁾, 이 중

1)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2006.3.30, p.289

2) 보통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서비스 협정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WTO 통계에서는 FTA와 서비스 협정이 각각 중복되어 집계된다. 예를들면, 한-칠레 FTA의 경우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으로 총 2건으로 집계된다.

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121건, 서비스 협정이 52건, 개도국간 특혜협정이 12건,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1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지역무역협정이 협상중 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협정 건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무역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세계의 무역량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국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으로 성장한 중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래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무역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중 양국도 세계적 추세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한·중간 FTA 체결에 대해서도 매우 큰 국가적 관심을 바탕으로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한·중간 서비스 협정이나 FTA 체결을 통한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이익은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경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한·중간의 서비스 협정이나 FTA 체결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유효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재화무역과는 달리 한국의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에 비켜서있던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그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세계 서비스무역의 추이와 현황, 그리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 등의 지표를 추정한 결과로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부문별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양국간 비교우위 관계를 평가하여 앞으로 양국간 서비스부문의 국제분업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기초로 하여 국제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국내외 전문서적과 학술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KOTRA 등 국내 유관기관의 자료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경제부처 웹사이트 및 통계연감, 그리고 WTO, IMF, OECD, UN과 그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무형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가지는 서비스와 서비스무역의 한계로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문헌들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재화무역에 대한 분석에 적용되는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 이론을 활용하여 세계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추이, 한·중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도출하는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한·중 상호간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치를 대용하여 두 나라의 서비스 무역 현황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 관계를 유형재인 재화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방법에 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의 정의와 개념 및 분류,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와 그 현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재화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활용되는 경제이론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의 서비

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및 전체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부문별 비교우위 관계를 파악하고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행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제2장. 서비스와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1.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한히 많은 서비스를 소비한다. 대형할인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입출금을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우리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서비스를 소비하는 시간의 연속이다. 도소매, 은행, 광고, 보험, 통신, 금융, 건설, 여행, 운송 등 매우 포괄적 범위가 모두 서비스 부문에 속한다.

서비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방이 타방에 제공할 수 있는 행위로, 물리적 제품에 연계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³⁾ 일반상품의 유형성과 비교하여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서비스의 특성은 무형성(intangibility)이다. 무형성 이외에 생산과 소비의 불가분성(inseparabil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이질성(heterogeneity) 및 소멸성(perishability) 혹은 저장불능성(non-storability) 등이 서비스의 주요 특성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 중에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무형성으로,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히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이 어렵고 가격결정 논리가 불분명해진다.⁴⁾

이렇게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시대의 변화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지만 이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문헌에 나타난 분류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3) 이창재 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121

4)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32

표 2-1. 서비스의 분류

학 자	분류기준	분 류	주요내용
엘프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업무나 활동	생산자 서비스	중간재투입재적 요소 서비스 :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유통 서비스	유통 및 운송 관련 서비스 :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개인 서비스	소비자 관련 서비스 :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사회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그루벨과 위커	지출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구매서비스 (엘프링의 개인서비스) : 호텔, 금융·보험업, 이·미용업
		생산자 서비스	요소 및 중간투입서비스 : 회계, 광고, 정보·통신 등
		정부 서비스	공공재적 서비스 (엘프링의 사회서비스) : 교육, 의료, 보건, 국방, 치안 등
하타	매매대상	물적 서비스	물자매매수단 서비스 : 임대 및 리스, 오락·게임업
		인적 서비스	인간행위관련 서비스 :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업 등
		시스템적 서비스	조직화된 제도적 서비스 : 정보·통신업, 보험업 등
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간투입성격 서비스 : 금융, 수리, 컨설팅 서비스 등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소비자·물리적·심리적 상대관련 서비스 : 여객운송, 의료, 교육, 통신 등

자료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2, p.683

또한 서비스의 분류에 있어 최초의 다자간 서비스협상인 UR 협상에서는 서비스를 12개 부문(sector)으로 나누고, 이들 12개 부문을 다시 155개의 세부문(sub-sector)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방법은 대체로 UN의 잠정중심생산물분류(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분류체계에 기초한 것인데 그 내용은 [표2-2]와 같다.

표 2-2. UR에서의 서비스 분류

분 야	하 위 분류
사업서비스	전문직,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임대, 기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우편, 통신, 시청각, 기타 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일반빌딩, 일반토목엔지니어링, 설치 및 조립,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기타 서비스
유통서비스	위탁에이전트, 도매·소매 서비스
교육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하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기타 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은행 및 기타 금융, 기타 서비스
보건 및 사회서비스	병원, 기타 인간건강, 사회, 기타 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 여행사 및 여행업, 여행가이드,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유흥, 뉴스에이전시,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기타 서비스
운송서비스	해상, 내수면, 항공, 우주, 철도, 도로, 관로, 운송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자료 : WTO,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2. 서비스 무역의 개념

서비스의 거래는 오랜 시간 국내경제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이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비스의 소비와 공급이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 즉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인 서비스 무역이 어떠한 것인지는 GATT/UR에서 합의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 GATS) 상에 공급방식에 의한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다. GATS상에 나타난 서비스무역의 형태는 각각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및 자연인의

주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서비스의 공급자가 이동하지 않고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형태이다. 서비스 생산자가 서비스 소비국내에 주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수출국내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서비스 수입국에 공급하는 것이다.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 공급지(서비스 수출국)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다. 해외관광과 같이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수요자가 외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또는 항공기나 선박 등의 해외현지에서의 수선·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말한다.

표 2-3. 서비스의 공급형태

공급자 주재	기 준	형 태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내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회원국의 영토내로 서비스가 인도됨 ⁵⁾	국경간 공급
	회원국의 영토밖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인도됨 ⁶⁾	해외소비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 영토내에 주재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가 인도됨 ⁷⁾	상업적 주재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자연인으로써 주재하는 공급자에 의해 서비스가 인도됨 ⁸⁾	자연인의 주재

자료 :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8 March 2001, p.9

5)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6) Service delivered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Member,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to a service consumer of the Member

7)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through the commercial presence of the supplier

8) Service delive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with supplier present as a natural person

셋째, 상업적 주재(駐在) (commercial presence)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요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 외국 기업이 서비스 수입국내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거나 해외간접 투자와 같이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을 통해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에는 서비스 무역을 넓게 해석하여 전통적 의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외에 현지에 설립된 기업을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인 외국인 계열사 서비스 무역(Foreign Affiliates Trade in Services : FATS)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있다.⁹⁾

넷째, 자연인의 주재(駐在) (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상업적 주재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요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업적 주재의 공급주체는 법인인데 반하여 자연인의 주재는 공급주체(이동자)가 자연인일 경우를 말한다. 텔런트나 컨설턴트, 회계사, 엔지니어 등과 같이 개인(개별 서비스 생산자)이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공급업체의 임직원이 현지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상품에 체화하여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별도의 상품처럼 분리되어 독립적인 업체가 공급하게 되자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서비스무역이 국제무역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1979년 당시 세계 총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이고, 서비스무역 규모는 1980년에 약 4,200억 달러로 세계상품교역의 25%에 이르게 됨으로써 서비스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¹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서

9) 윤창인, 전계서, p.38

10) 성일석,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점차 강조되어지고 있다.

21세기에도 국민경제에 있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비스경제 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점증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무역은 세계 경제와 각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 무역은 현재 국가경제와 주권에 밀접한 분야 까지도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일국의 서비스 무역 발전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둘째, 서비스 무역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소득탄력성이 낮아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폭이 작아져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셋째, 일국의 경제활동에 있어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높은 선진경제국일 수록 국가경제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넷째, 서비스 무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킨다. 서비스는 독립적인 무형상품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 통신, 회계, 법무,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분업화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 무역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한다. 관광, 문화, 스포츠, 유통, 판매 등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커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이에 따른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여섯째,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전적인 산업을 크게 압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촉매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서비스 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무역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는 국가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

제2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황

1.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

세계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서비스 무역은 각국의 국가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세계 서비스 무역은 수출이 2조 8,163억 달러, 수입이 2조 7,102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교역을 포함하는 전체 세계무역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9.0%, 18.6%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약 20%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WTO의 보고서¹¹⁾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서비스 무역(18%)은 상품무역(15%)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운송가격의 상승과 함께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이 다양한 형태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무역이 글로벌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지만, 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부가가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1)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p.6

표 2-4.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세

(단위 : 10억 달러, %)

연도 구분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무역 (상품+서비스)	6,675.8	6,591.6	6,837.8	6,774.9	7,871.2	7,897.9	8,026.6	8,017.3	11,367.7	11,280.1	14,794.4	14,555.5
연간 증가율			-1.3	-0.6	11.2	11.8	5.4	4.6	21.6	21.5	14.7	13.9
상품 무역	5,356.8	5,253.2	5,445.3	5,380.9	6,347.5	6,357.3	6,380.5	6,359.7	9,085.2	9,034.8	11,978.1	11,845.3
비 중	80.2	79.7	79.6	79.4	80.6	80.5	79.5	79.3	79.9	80.1	81.0	81.4
연간 증가율			-2.1	-1.1	12.6	13.3	4.8	4.2	21.8	22.1	15.7	15.1
서비스 무역	1,319.1	1,338.5	1,392.5	1,394.0	1,523.7	1,540.6	1,646.1	1,657.6	2,282.5	2,245.4	2,816.3	2,710.2
비 중	19.8	20.3	20.4	20.6	19.4	19.5	20.5	20.7	20.1	19.9	19.0	18.6
연간 증가율			1.9	1.4	5.8	6.3	7.7	6.3	20.5	19.0	10.7	9.2

주 : 무역액은 2년 단위로 나타나 있으나 연간 증가율은 1년 단위의 수치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이 4,564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 수출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2,730억 달러로 8.3%, 독일이 2,058억 달러로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세계 6위로 1,271억 달러를 수출하여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로 뒤를 이어 중국이 1,217억 달러로 3.7%, 인도가 897억 달러로 2.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계 9위에 자리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도 미국이 3,359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 수입의 10.9%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이 2,505억 달러로 8.1%, 영국이 1,941억 달러로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이 1,487억 달러로 4.8%, 중국이 1,293억 달러로 4.2%의 비중을 차지하여 각각 4위와 5위로 서비스 수출에서 보다 수입에서 더 높은 순위에 매겨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수출은 615억 달러로 1.9%,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는

868억 달러로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에서 세계 18위, 서비스 수입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 순위 (2007년)

(단위 : 10억 달러, %)

수출국				수입국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456.4	13.9	1	미국	335.9	10.9
2	영국	273.0	8.3	2	독일	250.5	8.1
3	독일	205.8	6.3	3	영국	194.1	6.3
4	프랑스	136.7	4.2	4	일본	148.7	4.8
5	스페인	128.3	3.9	5	중국	129.3	4.2
6	일본	127.1	3.9	6	프랑스	124.1	4.0
7	중국	121.7	3.7	7	이탈리아	118.3	3.8
8	이탈리아	110.5	3.4	8	스페인	98.4	3.2
9	인도	89.7	2.7	9	아일랜드	94.5	3.1
10	아일랜드	89.0	2.7	10	네델란드	86.8	2.8
18	한국	61.5	1.9	12	한국	82.5	2.7
세 계		3290.0	100.0	세 계		3085.0	100.0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p.14

일국의 경제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선진 경제국들의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국들의 통계를 보면, 선진국들의 서비스 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5년 현재 평균 70%에 육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76.0%, 영국 75.9%, 프랑스 77.0%, 독일 69.7%, 일본 69.9%로 서비스 산업이 주요 OECD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넘어서고 있다.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단위 : %)

국 가	1995년	2005년	국 가	1995년	2005년	국 가	1995년	2005년
호 주	67.8	68.9	헝가리	61.9	65.6	노르웨이	62.8	55.4
오스트리아	66.9	68.6	아이슬란드	60.9	68.7	폴란드	56.8	64.6
벨기에	70.2	74.8	아일랜드	55.0	61.9	포르투갈	65.9	72.2
캐나다	66.4	66.7	이탈리아	66.4	71.2	슬로바키아	56.3	59.9
체 코	56.7	58.8	일 본	64.9	69.9	스페인	66.1	67.5
덴마크	71.5	73.0	한 국	51.8	56.3	스웨덴	67.0	70.6
핀란드	62.8	65.7	룩셈부르크	77.2	83.4	스위스	68.2	72.3
프랑스	72.6	77.0	멕시코	68.3	70.2	터 키	52.4	59.2
독 일	66.6	69.7	네델란드	69.2	73.7	영 국	67.5	75.9
그리스	70.0	76.6	뉴질랜드	66.9	69.1	미 국	72.0	76.0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7 Edition*, p.16-17

일국의 경제에 대하여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용측면에서 보면, OECD 가입국들의 경우 2005년 현재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자국 전체고용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 78.6%, 영국 76.4%, 프랑스 73.9% 등 일부 OECD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수준이 전체고용의 8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¹²⁾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부문 고용수준은 전체고용 대비 73.7%이며, EU-15¹³⁾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부문 고용수준은 69.8% 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전체고용 대비 서비스 산업의 고용수준에서 보듯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12) G7(Group of Seven)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의 모임을 말한다. 1998년 영국 버밍엄 회의에서 러시아가 정식으로 참가하면서 G8이 결성되었다.

13) EU-15는 2004년 회원국이 확대되기 전의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회원국들로 그리스·네델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 등 15개국이다. 2004년에 폴란드 등 10개국, 2007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여 27개국이 되었다.

은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의 두 가지 문제를 서비스업이라는 해법을 통하여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또한 1995년과 2005년의 GDP 대비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1.8%와 56.3%이고, 전체고용 대비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각각 54.8%와 65.2%로 나타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의 서비스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7.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

(단위 : %)

국 가	1995년	2005년	국 가	1995년	2005년	국 가	1995년	2005년
호 주	72.2	75.3	헝가리	58.2	62.2	노르웨이	71.4	75.8
오스트리아	60.3	66.9	아이슬란드	65.8	71.9	폴란드	45.4	53.4
벨기에	71.1	73.3	아일랜드	59.9	66.2	포르투갈	56.1	57.3
캐나다	74.0	75.3	이탈리아	59.2	64.6	슬로바키아	51.9	56.5
체 코	51.1	56.4	일 본	60.8	67.6	스페인	60.9	64.8
덴마크	68.1	72.6	한 국	54.8	65.2	스웨덴	71.0	76.0
핀란드	64.5	69.3	룩셈부르크	70.4	79.7	스위스	66.9	72.5
프랑스	69.1	73.9	멕시코	55.0	58.1	터 키	33.9	45.8
독 일	60.5	67.6	네델란드	73.7	76.6	영 국	70.7	76.4
그리스	56.4	65.2	뉴질랜드	65.2	70.8	미 국	73.1	78.6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7 Edition*, p.30-31

서비스 무역의 대상인 상업서비스의 부문별 세계 수출입 비중을 보면 운송, 여행 및 기타 상업서비스 중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 건설, 보험, 금융, 기술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업서비스의 수출입액에 대하여 기타 상업서비스는 수출측면에 44.5%, 수입측면에서 41.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액이 1조 6,85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액에서의 비중이 51.2%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액은 1조 4,150억 달러로 비중이 45.9%로 확장되었다. 이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서비스 무역 규모가 운송서비스와 여행의 서비스 무역 규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 2-8. 세계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2007년)

(단위 : 10억 달러, %)

		금액	비 중				
			2007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	전 체	3,29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750	23.5	23.1	23.3	22.6	22.8
	여행	855	32.0	28.8	27.7	27.0	26.0
	기타 상업서비스	1,685	44.5	48.1	49.0	50.4	51.2
수입	전 체	3,085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890	28.8	28.3	29.1	28.9	28.9
	여행	775	29.7	27.7	26.9	25.9	25.2
	기타 상업서비스	1,415	41.5	44.0	44.1	45.1	45.9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p.123

세계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상업 서비스의 부문별 수출액 증가에 따른 성장률로 보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7년간 운송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 여행서비스의 경우 7%, 기타 상업서비스의 경우 12%로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의 성장률과 2006년의 연간 성장률의 변화를 보면 운송서비스는 12%에서 9%로, 여행은 8%에서 7%로 성장률이 저하될 때 기타 상업서비스는 12%에서 13%로 연간 성장률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앞 절에서 언급한 서비스 무역이 가지는 특성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어려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접근성(proximity)이 더욱 요구되는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한 장소적 제약의 극복과 상품의 부수적 요소로 인식되던 서비스의 독립적

상품화 및 서비스 공급의 국제적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¹⁴⁾의 확대 추세, 그리고 금융·보험 서비스 등 고 부가가치 업종의 발달에 따라 기타 상업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비중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성장률

(단위 : 10억 달러, %)

	금액	연평균 성장률			
	2006년	2000~06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업 서비스	2,710	10	20	11	11
운송서비스	626	10	25	12	9
여행	737	7	18	8	7
기타 상업서비스	1,347	12	19	12	13

자료 :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Report 2007*, p.10

IMF의 BOP(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에서는 서비스를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서비스 등 총 11개 부문으로 분류하는데, 2006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여행서비스가 29.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무역 및 기타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운송리스 서비스와 법률, 건축서비스 등 전문·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이 23.6%로 나타났다. 기타 사업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화물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기타 운송서비스로 분류되는 운송 서비스가 21.8%의 수출을 구성하고 있다. 앞의 3가지 서비스 부문이 세계 서비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 통신, 정부 서비스, 건설, 보험, 개인·문화·오락 부문 순으로 비중의 우위가 나타

14)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량을 제외한 회사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전략적 차원의 아웃소싱 방식. 기획 단계부터 운영, 모니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수적인 단순 업무를 위탁하는 기술적인 수준의 개념인 기존의 아웃소싱과 구분된다.

나고 있다.

표 2-10.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 (2006년)

(단위 : 10억 달러, %)

운송 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	개인·문화 오락	정부 서비스	서비스 합 계
615.1 (21.8)	735.8 (26.1)	69.4 (2.5)	59.9 (2.1)	60.5 (2.1)	215.2 (7.6)	130.4 (4.6)	146.1 (5.2)	665.8 (23.6)	34.19 (1.2)	69.4 (2.5)	2,816.3 (100.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2.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1)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한국의 서비스 국제교역 현황 파악에 앞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국민 소득 부속표(2000년 기준)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로 알아보면, 먼저 한국의 총 GDP는 1998년 487.8조 원에서 2000년 578.7조 원, 2004년 694.0조 원, 2007년 798.1조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4.71%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1998년 247.2조 원에서 2000년 279.6조 원, 2004년 327.2조 원, 2007년 369.2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4.07%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8년 50.7%, 2000년 48.3%, 2002년 49.2%, 2004년 47.1%, 2007년 46.3%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2년 이후부터 미세하게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그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의 약 4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92%로 타 산업들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어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0.27%로 매우 저조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고, 광업의 경우에는 비중 또한 축소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한국의 경제활동별 GDP (2000년 기준)

(단위 : 조 원, %)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금액	23.4	24.7	25.0	25.3	24.4	23.1	25.3	25.4	25.1	25.3	0.27
	비중	4.8	4.6	4.3	4.2	3.8	3.5	3.6	3.5	3.3	3.2	
광업	금액	1.9	2.0	2.0	2.0	1.9	1.9	1.9	1.9	1.9	2.0	-0.36
	비중	0.4	0.4	0.4	0.3	0.3	0.3	0.3	0.3	0.3	0.2	
제조업	금액	106.2	129.3	151.2	154.5	166.2	175.4	194.9	208.7	226.4	241.0	6.92
	비중	21.8	24.2	26.1	25.7	25.9	26.5	28.1	28.9	29.8	30.2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액	10.7	11.7	13.2	14.2	15.3	16.0	17.0	18.4	19.0	19.8	5.93
	비중	2.2	2.2	2.3	2.4	2.4	2.4	2.5	2.5	2.5	2.5	
건설업	금액	48.3	44.5	42.9	45.3	46.5	50.5	51.5	51.4	51.6	52.5	2.96
	비중	9.9	8.3	7.4	7.5	7.2	7.6	7.4	7.1	6.8	6.6	
서비스업	금액	247.2	263.4	279.6	293.1	316.1	321.0	327.2	338.2	352.4	369.2	4.07
	비중	50.7	49.4	48.3	48.8	49.2	48.4	47.1	46.8	46.3	4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액	44.4	51.4	55.6	58.1	61.3	59.6	59.5	60.7	62.8	65.0	2.30
	비중	9.1	9.6	9.6	9.7	9.5	9.0	8.6	8.4	8.3	8.1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액	26.8	30.3	36.1	41.5	45.3	47.5	50.8	53.3	55.7	58.7	7.22
	비중	5.5	5.7	6.2	6.9	7.1	7.2	7.3	7.4	7.3	7.4	
금융보험업	금액	34.0	34.6	35.3	38.2	46.6	46.9	46.2	48.4	50.9	56.2	7.11
	비중	7.0	6.5	6.1	6.4	7.3	7.1	6.7	6.7	6.7	7.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액	62.3	64.2	68.1	68.4	71.7	73.3	74.7	77.2	80.2	83.1	2.90
	비중	12.8	12.0	11.8	11.4	11.2	11.1	10.8	10.7	10.5	10.4	
공공행정 및 국방	금액	28.0	29.1	29.1	29.6	30.4	31.2	31.8	32.7	33.7	34.6	2.47
	비중	5.7	5.4	5.0	4.9	4.7	4.7	4.6	4.5	4.4	4.3	
교육 서비스업	금액	24.9	25.2	25.7	26.9	28.1	29.2	29.8	30.2	31.0	31.4	2.94
	비중	5.1	4.7	4.4	4.5	4.4	4.4	4.3	4.2	4.1	3.9	
보건 및 사회복지	금액	12.2	12.8	12.6	12.0	12.7	13.3	14.0	14.8	15.8	17.1	4.57
	비중	2.5	2.4	2.2	2.0	2.0	2.0	2.0	2.0	2.1	2.1	
기타 서비스	금액	14.6	15.9	17.2	18.3	19.9	20.2	20.4	21.0	22.2	23.1	4.40
	비중	3.0	3.0	3.0	3.0	3.1	3.0	2.9	2.9	2.9	2.9	
총부가가치(기초가격)		437.7	475.6	514.1	534.4	570.4	588.0	617.8	644.0	676.3	709.8	4.72
순생산물세		49.5	57.8	64.6	66.4	72.3	74.7	76.2	79.1	83.9	88.2	4.57
국내총생산(시장가격)		487.2	533.4	578.7	600.9	642.7	662.7	694.0	723.1	760.3	798.1	4.71

주 : 1.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2. 각 항목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연평균성장률은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의 연간 평균 성장률임
 자료 :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이 국민소득 부속표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에서는 서비스업과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WTO/GATS에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항목의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연평균 5.93% 성장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998년 9.9%에서 2007년에는 6.6%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증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실시와 경기악화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해외건설 수주감소 등의 원인으로 점차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산업부문별 고용 상황으로 보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2000년 2,116만 명에서 2007년 2,343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47%로 증가하였다. 총 취업자 수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2000년 224만 명에 그 비중은 10.6%에 이르렀으나 2007년에는 173만 명에 7.4%로 취업자 수의 감소와 함께 비중이 축소되고,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3.65% 감소되었다. 제조업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와 비중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0.58% 감소하였으며 2007년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1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0년 1,296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에서 61.2%의 비중을 차지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63만 명으로 6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2007년 까지 연평균 2.73%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의 2/3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WTO/GATS의 분류와 같이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여 분류하면 2007년 현재 총 취업자 수 대비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그 비중이 75%에 육박하게 된다. 전기·가스·수도 사업과 건설업도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수가 각각 연평균 5.71%, 2.34%씩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의 경우 취업자 수의 비중이 2007년 185만 명으로 개별 산업으로서도 전체 취업자 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한국의 산업별 고용 현황

(단위 : 천 명, %)

항 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어업	인원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3.65
	비중	10.6	10.0	9.3	8.8	8.1	7.9	7.7	7.4	
광업	인원	17	18	18	17	16	17	18	18	0.94
	비중	0.1	0.1	0.1	0.1	0.1	0.1	0.1	0.1	
제조업	인원	4,293	4,267	4,241	4,205	4,290	4,234	4,167	4,119	-0.58
	비중	20.3	19.8	19.1	19.0	19.0	18.5	18.0	17.6	
전기·가스·수도 사업	인원	64	58	52	76	72	71	76	86	5.71
	비중	0.3	0.3	0.2	0.3	0.3	0.3	0.3	0.4	
건설업	인원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1,850	2.34
	비중	7.5	7.3	7.9	8.2	8.1	7.9	7.9	7.9	
서비스업	인원	12,958	13,497	14,044	14,075	14,535	14,903	15,272	15,634	2.73
	비중	61.2	62.6	63.3	63.6	64.4	65.2	66.0	66.7	
도매 및 소매업	인원	3,833	3,931	3,991	3,871	3,805	3,748	3,713	3,677	-0.58
	비중	18.1	18.2	18.0	17.5	16.9	16.4	16.0	15.7	
숙박 및 음식점업	인원	1,919	1,943	2,007	1,981	2,057	2,058	2,049	2,049	0.96
	비중	9.1	9.0	9.1	8.9	9.1	9.0	8.9	8.7	
운수업	인원	1,068	1,114	1,140	1,084	1,128	1,149	1,163	1,214	1.89
	비중	5.0	5.2	5.1	4.9	5.0	5.0	5.0	5.2	
통신업	인원	192	208	231	249	248	279	308	284	5.98
	비중	0.9	1.0	1.0	1.1	1.1	1.2	1.3	1.2	
금융 및 보험업	인원	752	760	734	751	738	746	786	809	1.09
	비중	3.6	3.5	3.3	3.4	3.3	3.3	3.4	3.5	
부동산 및 임대업	인원	351	381	413	423	453	497	500	505	5.40
	비중	1.7	1.8	1.9	1.9	2.0	2.2	2.2	2.2	
사업서비스업	인원	1,010	1,149	1,251	1,303	1,461	1,540	1,669	1,845	9.04
	비중	4.8	5.3	5.6	5.9	6.5	6.7	7.2	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인원	758	701	702	757	768	791	801	797	0.81
	비중	3.6	3.2	3.2	3.4	3.4	3.5	3.5	3.4	
교육서비스업	인원	1,191	1,236	1,335	1,484	1,507	1,568	1,658	1,687	5.15
	비중	5.6	5.7	6.0	6.7	6.7	6.9	7.2	7.2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인원	428	484	551	539	594	646	686	745	8.36
	비중	2.0	2.2	2.5	2.4	2.6	2.8	3.0	3.2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인원	365	393	418	425	458	501	499	493	4.47
	비중	1.7	1.8	1.9	1.9	2.0	2.2	2.2	2.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입서비스업	인원	886	975	1,038	994	1,169	1,226	1,282	1,353	6.41
	비중	4.2	4.5	4.7	4.5	5.2	5.4	5.5	5.8	
가사서비스업	인원	186	206	215	192	125	130	138	161	-0.52
	비중	0.9	1.0	1.0	0.9	0.6	0.6	0.6	0.7	
국제 및 외국기관	인원	19	16	18	22	24	24	20	15	-1.95
	비중	0.1	0.1	0.1	0.1	0.1	0.1	0.1	0.1	
총 취업자수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1.47

주 :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통계청,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2)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

무형성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의 거래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수치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특히 이러한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인 서비스 무역은 실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추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제수지 통계를 제공하는 IMF의 BOP(Balance of Payment) 통계 및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¹⁵⁾,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산업 부문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낸 것으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세부 산업의 분야별 현황과 타 산업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첫째, 산업연관표에는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이전으로 나타나는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무역이 포착되지 않는다. 둘째, 개인이 중심이 된 국경간 공급 및 해외 소비의 반영이 어려우며, 상업적 주체에 의한 무역의 경우 부분적인 누락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수출평가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가격으로 하여 수출과 관련된 운임료와 보험료는 운수서비스와 보험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수출로 처리되지만, 수입평가는 보험·운임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를 분리하여 각 부문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⁶⁾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한국의 전 산업을 포함하는 총 수출은 약 272조 790억 원, 총 수입은 약 268조 2,970억 원으로 약 3조 7,820억 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농림어업은 약 6조 3,780억 원, 광산업은 약 41조 6,300억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제조업에서는 47조 6,810억 원, 서비스업에서 4조 6,610억 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측면에서는 제조업이 230조 3,320억 원으로 84.66%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이 39조 5,950억 원으로 14.55%, 농림어업이 5,320억 원으로 0.2%, 광산업이 290억 원으로 0.01%를 차지하였다. 수입측면에서는 제조업이 182조 7,140억 원으로 68.10%를 차지하여 역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광산업의 수입금액이 41조 6,590억 원으로 15.53%, 서비스업이 34조 9,340억 원으로 13.02%, 농

15)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를 산업 부문별로 나누어 부문 사이의 투입과 산출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통계표. 경제 분석, 경제 예측, 경제 계획 따위에 이용된다.

16) 윤창인, 전게서, p.55

림어업이 6조 9,100억 원으로 2.58%를 차지하였다.

표 2-13.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 현황 (2003년)

(단위 : 십억 원, %)

항 목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 산업	272,079	100.0	268,297	100.0	3,782
농림어업	532	0.20	6,910	2.58	- 6,378
광산업	29	0.01	41,659	15.53	- 41,630
제조업	230,332	84.66	182,714	68.10	47,618
서비스업	39,595	14.55	34,934	13.02	4,661
전력	44	0.02	61	0.02	- 17
도시가스 및 수도	6	0.00	52	0.02	- 46
건축 및 건축보수	21	0.01	18	0.01	3
토목건설	261	0.10	-	0.00	261
도소매	7,950	2.92	1,350	0.50	6,601
음식점 및 숙박	2,847	1.05	5,617	2.09	- 2,770
운수 및 보관	18,325	6.74	7,135	2.66	11,190
통신 및 방송	570	0.21	1,158	0.43	- 588
금융 및 보험	2,285	0.84	1,757	0.65	528
부동산	535	0.20	1,343	0.50	- 807
사업서비스	5,667	2.08	12,648	4.71	- 6,981
공공행정 및 국방	322	0.01	319	0.12	- 287
교육 및 연구	42	0.02	1,479	0.55	- 1,437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	788	0.03	56	0.02	21
문화오락서비스	741	0.27	1,812	0.68	- 1,071
기타 서비스	191	0.07	133	0.05	59
분류불명	1,590	0.58	2,079	0.77	- 489

주 : 1. 「산업연관표」의 생산자가격표 항목 중 '수출 및 (공제)수입계' 수치로 작성

2.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이 서비스업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비스 산업의 세부 부문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은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문이 18조 3,250억 원, 도소매 서비스 부문이 7조 9,500억 원, 사업서비스 부문이 5조 6,670억 원으로 주요 수출산업이며,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가 12조 6,480억

원,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문이 7조 1,350억 원,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부문이 5조 6,170억 원으로 주요 수입산업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에 나타난 서비스 산업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부문이 6조 9,810억 원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였고, 운수 및 보관 서비스 부문이 11조 1,900억 원의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였다.

IMF에서 제공하는 BOP 통계에 기록된 수출입 금액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630.3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836.1억 달러로 약 205.8억 달러 서비스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8년 10.2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한 뒤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 28.5억 달러, 2002년 82억 달러, 2004년 80.5억 달러, 2006년 189.6억 달러 등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적자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세부 부문별 현황을 보면, 운송 서비스의 경우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운송 서비스 중 화물운송의 경우 흑자의 폭이 크게 나타나 있고 여객운송은 화물운송 보다 흑자폭이 10% 내외의 수준이지만 이 또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운송 서비스 중 기타 운송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운송 서비스 전체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행 서비스의 경우 2000년에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의 폭이 급격히 확대되어 2007년 현재 15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도 1998년 36.4억 달러, 2004년 66.4억 달러, 2007년 93.7억 달러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의 폭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의 수출입 현황 중에서 눈에 띄는 통계로 기타 서비스 수출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가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의 경우 1998년 1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2007년 현재 8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권 등 사용료 분야에서도 역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경우 수출입 금액을 비교하면 1998년 수출 2.6억 달러, 수입 23.7억 달러, 2007년 현재는 수출 19.2억 달러, 수입 50.8억 달러로 계속해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의 2~3배 이상 나타나고 있어 적자의 폭이 거래금액에 비하여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분야의 경우 건설, 금융, 정부 서비스 정도가 흑자를 기록하고 통신,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분야 등은 모두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2-14. 한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단위 : 억 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전체	255.7 (100.0)	245.4 (100.0)	10.2	265.3 (100.0)	271.8 (100.0)	-6.5	305.3 (100.0)	333.8 (100.0)	-28.5	290.6 (100.0)	329.3 (100.0)	-38.7	283.9 (100.0)	365.9 (100.0)	-82.0
운송 서비스	102.0 (39.9)	89.8 (36.6)	12.2	114.7 (43.2)	99.8 (36.7)	14.9	136.9 (44.8)	110.5 (33.1)	26.4	131.8 (45.4)	110.4 (33.5)	21.4	132.2 (46.6)	113.0 (30.9)	19.2
여객운송	13.6 (5.3)	5.6 (2.3)	8.0	15.0 (5.6)	6.7 (2.5)	8.2	16.9 (5.5)	8.1 (2.4)	8.8	15.4 (5.3)	7.3 (2.2)	8.0	16.9 (5.9)	9.8 (2.7)	7.1
화물운송	80.8 (31.6)	19.9 (8.1)	60.9	90.1 (34.0)	28.3 (10.4)	61.8	100.0 (32.7)	32.0 (9.6)	67.9	95.7 (32.9)	30.3 (9.2)	65.5	98.1 (34.6)	37.0 (10.1)	61.1
기타 운송	7.7 (3.0)	64.4 (26.2)	-56.7	9.6 (3.6)	64.8 (23.8)	-55.2	20.0 (6.6)	70.3 (21.1)	-50.3	20.7 (7.1)	72.8 (22.1)	-52.1	17.2 (6.1)	66.3 (18.1)	-49.1
여행	69.1 (27.0)	34.7 (14.1)	34.4	68.4 (25.8)	48.8 (18.0)	19.6	68.3 (22.4)	71.3 (21.4)	-3.0	63.8 (22.0)	76.2 (23.1)	-12.3	59.4 (20.9)	104.7 (28.6)	-45.3
기타 서비스	84.5 (33.1)	120.9 (49.3)	-36.4	82.2 (31.0)	123.2 (45.3)	-41.0	100.1 (32.8)	152.0 (45.5)	-51.9	94.9 (32.7)	142.7 (43.3)	-47.8	92.4 (32.5)	148.2 (40.5)	-55.8
통신	6.6 (2.6)	11.3 (4.6)	-4.8	4.0 (1.5)	6.8 (2.5)	-2.8	3.9 (1.3)	6.2 (1.9)	-2.4	4.0 (1.4)	7.4 (2.3)	-3.4	3.8 (1.3)	6.9 (1.9)	-3.1
건설	0.1 (0.0)	0.1 (0.0)	-0.1	0.1 (0.0)	0.1 (0.1)	0.1	0.3 (0.1)	0.2 (0.0)	0.1	0.8 (0.3)	0.2 (0.0)	0.7	0.4 (0.1)	0.2 (0.1)	0.2
보험	0.5 (0.2)	1.4 (0.6)	-0.9	0.5 (0.2)	-1.1 (-0.4)	1.6	0.7 (0.2)	1.5 (0.4)	-0.8	0.6 (0.2)	3.7 (1.1)	-3.1	0.4 (0.1)	5.7 (1.6)	-5.3
금융	1.5 (0.6)	1.1 (0.4)	0.4	4.8 (1.8)	1.9 (0.7)	2.9	7.1 (2.3)	1.9 (0.6)	5.1	5.3 (1.8)	0.8 (0.3)	4.5	7.0 (2.4)	0.7 (0.2)	6.3
컴퓨터 및 정보	0.1 (0.0)	0.9 (0.4)	-0.9	0.0 (0.0)	0.7 (0.3)	-0.7	0.1 (0.0)	0.9 (0.3)	-0.8	0.2 (0.1)	1.0 (0.3)	-0.9	0.2 (0.1)	1.2 (0.3)	-1.1
특허권 등 사용료	2.6 (1.0)	23.7 (9.7)	-21.1	4.6 (1.7)	26.6 (9.8)	-22.1	6.9 (2.3)	32.2 (9.6)	-25.3	9.2 (3.2)	30.5 (9.3)	-21.3	8.4 (2.9)	30.0 (8.2)	-21.7
기타 사업 서비스	65.8 (25.7)	77.2 (31.4)	-11.4	60.4 (22.7)	82.8 (30.4)	-22.4	72.0 (23.6)	103.3 (30.9)	-31.3	63.9 (22.0)	92.4 (28.1)	-28.5	60.1 (21.2)	96.1 (26.3)	-36.0
개인문화 오락	0.1 (0.1)	0.9 (0.4)	-0.8	0.3 (0.1)	1.5 (0.6)	-1.2	1.4 (0.4)	1.6 (0.5)	-0.2	1.4 (0.5)	2.1 (0.6)	-0.7	1.9 (0.7)	2.8 (0.8)	-1.0
정부 서비스	7.4 (2.9)	4.3 (1.7)	3.1	7.6 (2.9)	4.1 (1.5)	3.6	7.9 (2.6)	4.3 (1.3)	3.6	9.5 (3.3)	4.5 (1.4)	5.0	10.4 (3.7)	4.5 (1.2)	5.9

주 : () 안의 값은 서비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표 2-14. 계속

(단위 : 억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전체	329.6 (100.0)	403.8 (100.0)	-74.2	418.8 (100.0)	499.3 (100.0)	-80.5	451.3 (100.0)	587.9 (100.0)	-136.6	498.9 (100.0)	688.5 (100.0)	-189.6	630.3 (100.0)	836.1 (100.0)	-205.8
운송 서비스	171.8 (52.1)	136.1 (33.7)	35.7	225.3 (53.8)	176.6 (35.4)	48.8	238.8 (52.9)	201.4 (34.3)	37.3	258.1 (51.7)	231.3 (33.6)	26.7	337.7 (53.6)	298.7 (35.7)	38.9
여객운송	16.5 (5.0)	9.6 (2.4)	6.9	21.6 (5.1)	11.6 (2.3)	10.0	24.8 (5.5)	15.2 (2.6)	9.7	27.2 (5.5)	21.4 (3.1)	5.8	31.5 (5.0)	24.7 (3.0)	6.8
화물운송	135.0 (41.0)	45.7 (11.3)	89.4	174.2 (41.6)	69.3 (13.9)	104.9	183.6 (40.7)	80.0 (13.6)	103.6	201.0 (40.3)	96.2 (14.0)	104.8	279.3 (44.3)	137.4 (16.4)	141.9
기타 운송	20.3 (6.2)	80.9 (20.0)	-60.6	29.5 (7.0)	95.7 (19.2)	-66.2	30.3 (6.7)	106.3 (18.1)	-76.0	29.9 (6.0)	113.7 (16.5)	-83.8	26.9 (4.3)	136.6 (16.3)	-109.8
여행	53.6 (16.3)	101.0 (25.0)	-47.5	60.7 (14.5)	123.5 (24.7)	-62.8	58.1 (12.9)	154.1 (26.2)	-96.0	57.9 (11.6)	188.5 (27.4)	-130.6	58.0 (9.2)	208.9 (25.0)	-150.9
기타 서비스	104.2 (31.6)	166.7 (41.3)	-62.5	132.8 (31.7)	199.2 (39.9)	-66.4	154.5 (34.2)	232.4 (39.5)	-77.9	183.0 (36.7)	268.7 (39.0)	-85.7	234.7 (37.2)	328.5 (39.3)	-93.7
통신	3.4 (1.0)	6.9 (1.7)	-3.5	4.5 (1.1)	6.4 (1.3)	-1.9	4.4 (1.0)	7.7 (1.3)	-3.3	6.4 (1.3)	-10.1 (1.5)	-3.7	5.7 (0.9)	9.3 (1.1)	-3.6
건설	0.4 (0.1)	0.1 (0.0)	0.2	1.0 (0.2)	-0.0 (0.0)	1.0	1.1 (0.2)	0.0 (0.0)	1.1	1.3 (0.3)	0.0 (0.0)	1.3	1.4 (0.2)	0.2 (0.0)	1.2
보험	0.3 (0.1)	3.9 (1.0)	-3.6	1.4 (0.3)	4.6 (0.9)	-3.2	1.7 (0.4)	7.3 (1.2)	-5.6	2.7 (0.5)	8.5 (1.2)	-5.8	3.2 (0.5)	11.2 (1.3)	-8.0
금융	7.0 (2.1)	1.0 (0.3)	6.0	10.8 (2.6)	1.3 (0.3)	9.6	16.5 (3.7)	2.4 (0.4)	14.2	25.4 (5.1)	5.5 (0.8)	20.0	41.5 (6.6)	7.1 (0.8)	34.4
컴퓨터 및 정보	0.3 (0.1)	1.3 (0.3)	-1.0	0.3 (0.1)	1.6 (0.3)	-1.3	0.6 (0.1)	1.8 (0.3)	-1.3	2.5 (0.5)	6.0 (0.9)	-3.5	3.4 (0.5)	5.4 (0.6)	-2.0
특허권 등 사용료	13.1 (4.0)	35.7 (8.8)	-22.6	18.6 (4.4)	44.5 (8.9)	-25.9	19.1 (4.2)	45.6 (7.8)	-26.5	20.5 (4.1)	46.5 (6.8)	-26.1	19.2 (3.0)	50.8 (6.1)	-31.6
기타 사업 서비스	66.9 (20.3)	110.5 (27.4)	-43.6	81.3 (19.4)	131.6 (26.4)	-50.4	94.2 (20.9)	155.4 (26.4)	-61.2	105.3 (21.1)	177.1 (25.7)	-71.7	141.2 (22.4)	225.1 (26.9)	-83.8
개인문화 오락	0.8 (0.2)	2.6 (0.6)	-1.9	1.3 (0.3)	3.8 (0.8)	-2.5	2.7 (0.6)	4.8 (0.8)	-2.1	3.7 (0.7)	6.7 (1.0)	-3.0	4.2 (0.7)	8.6 (1.0)	-4.5
정부 서비스	12.0 (3.7)	4.5 (1.1)	7.5	13.8 (3.3)	5.5 (1.1)	8.2	14.2 (3.1)	7.3 (1.2)	6.9	15.1 (3.0)	8.3 (1.2)	6.8	15.0 (2.4)	10.9 (1.3)	4.1

주 : () 안의 값은 서비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3.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과거 중국은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엄격한 진입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계획경제시기에는 서비스 부문을 순수 소비부문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이 국가독점 상태이거나 국유화 되어있었으며 외국자본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2001년 WTO 가입약속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 대외개방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외자유치에 매달려온 기존의 경제발전 계획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성장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11.5 계획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2월 6일 「서비스무역발전 11.5 계획개요」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최초 계획이다.

「서비스무역발전 11.5 계획개요」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무역 발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서비스무역 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서비스무역 촉진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서비스무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여섯째, 핵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발전정책과 법률체계를 정비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서비스 무역 확대정책과 서비스 산업 성장정책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면에서는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 부문의 수출입액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정책적 발전전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외국자본에 대한 대대적 개방으로 외자계 기업과 중국 국내기업간의 경쟁심화와 함께 이윤이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중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중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통계연감(2007)의 GDP 통계를 보면, 먼저 중국의 총 GDP는 1998년 844억 위안에서 2000년 992.1억 위안, 2003년 1,358.2억 위안, 2006년 2,108.7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 이후 연평균 12.18%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특히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여 2차 산업이 1998년 390억 위안에서 2000년 455.6억 위안, 2003년 624.4억 위안, 2006년 1,031.6억 위안으로 연평균 13.03%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6년 현재 중국 전체 GDP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2006년 현재 그 비중이 총 GDP의 39.4%로 2차 산업보다 비중은 낮지만, 1998년 305.8억 위안, 2000년 387.1억 위안, 2003년 560.0억 위안, 2006년 829.7억 위안으로 2차 산업보다 조금 높은 13.30%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GDP 비중이 서비스업의 GDP 비중의 약 60% 정도 수준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중국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아직 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15. 중국의 경제활동별 GDP 현황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억 위안, %)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성장률	
1차 산업	금액	148.2	147.7	149.4	157.8	165.4	173.8	214.1	230.7	247.4	6.81
	비중	17.6	16.5	15.1	14.4	13.7	12.8	13.4	12.5	11.7	
2차 산업	금액	390.0	410.3	455.6	495.1	539.0	624.4	739.0	873.6	1,031.6	13.03
	비중	46.2	45.8	45.9	45.1	44.8	46.0	46.2	47.5	48.9	
공 업	금액	340.2	358.6	400.3	435.8	474.3	549.5	652.1	772.3	913.1	13.24
	비중	40.3	40.0	40.4	39.7	39.4	40.5	40.8	42.0	43.3	
건설업	금액	49.9	51.7	55.2	59.3	64.7	74.9	86.9	101.3	118.5	11.54
	비중	5.9	5.8	5.6	5.4	5.4	5.5	5.4	5.5	5.6	
3차 산업	금액	305.8	338.7	387.1	443.6	499.0	560.0	645.6	734.3	829.7	13.30
	비중	36.2	37.7	39.0	40.5	41.5	41.2	40.4	40.0	39.4	
국내총생산(GDP)	844.0	896.8	992.1	1,096.6	1,203.3	1,358.2	1,598.8	1,838.7	2,108.7	12.18	

주 : 1. 전기·가스·수도 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2. 각 항목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p.57

중국 서비스 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기타 서비스가 338.8억 위안으로 전체 서비스 산업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도·소매업이 151.6억 위안으로 그 비중은 18.3%, 운수·창고 및 우편업이 120.3억 위안으로 14.5%, 부동산업이 94.8억 위안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기타 서비스업이 16.38%로 역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동산업이 13.57%, 숙박·요식업이 13.27%로 전체 서비스 산업의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표 2-16. 중국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구성 현황

(단위 : 억 위안, %)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성장률
서비스 전체	금액	305.8	338.7	387.1	443.6	499.0	560.0	645.6	734.3	829.7	13.3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수·창고 및 우편업	금액	46.6	51.8	61.6	68.7	74.9	79.1	93.0	108.4	120.3	12.67
	비중	15.2	15.3	15.9	15.5	15.0	14.1	14.4	14.8	14.5	
도·소매업	금액	69.1	74.9	81.6	91.2	100.0	111.7	124.5	135.3	151.6	10.32
	비중	22.6	22.1	21.1	20.6	20.0	19.9	19.3	18.4	18.3	
숙박·요식업	금액	17.9	19.4	21.5	24.0	27.2	31.3	36.7	41.9	48.3	13.27
	비중	5.8	5.7	5.5	5.4	5.5	5.6	5.7	5.7	5.8	
금융업	금액	37.0	38.2	40.9	43.5	46.1	49.9	53.9	63.1	75.9	9.53
	비중	12.1	11.3	10.6	9.8	9.2	8.9	8.4	8.6	9.1	
부동산업	금액	34.3	36.8	41.5	47.2	53.5	61.7	71.7	82.4	94.8	13.57
	비중	11.2	10.9	10.7	10.6	10.7	11.0	11.1	11.2	11.4	
기 타	금액	100.9	117.7	140.1	169.0	197.3	226.3	265.7	303.2	338.8	16.38
	비중	33.0	34.7	36.2	38.1	39.5	40.4	41.2	41.3	40.8	

자료 :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p.61-62

중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산업별 고용 상태로 살펴보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1998년 70,637만 명에서 2006년 76,400만 명으로 1998년 이후 연평균 0.99%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총 취업자 수에 대한 산업구조별 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1차 산업의 경우 2002년 까지 피고용자의 수가 증가하다가 2002년 36,870만 명

의 취업자 수로 정점을 보인 뒤 급속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998년 수준 보다 낮은 32,561만 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0.93%의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2006년 현재에도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비중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연평균 1.91% 증가하여 2006년 현재 19,225만 명의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3차 산업의 경우 연평균 3.39% 증가하여 24,614만 명의 취업자 수를 보이고 있다. 2차, 3차 산업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25.2%, 32.2%로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다 더 높은 고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전체 산업의 2/3을 상회하는 한국이나 더 높은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을 가지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표 2-17. 중국의 산업구조별 고용현황

(단위 : 만 명, %)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성장률	
1차 산업	인원	35,177	35,768	36,043	36,513	36,870	36,546	35,269	33,970	32,561	-0.93
	비중	49.8	50.1	50.0	50.0	50.0	49.1	46.9	44.8	42.6	
2차 산업	인원	16,600	16,421	16,219	16,284	15,780	16,077	16,920	18,084	19,225	1.91
	비중	23.5	23.0	22.5	22.3	21.4	21.6	22.5	23.8	25.2	
3차 산업	인원	18,860	19,205	19,823	20,228	21,090	21,809	23,011	23,771	24,614	3.39
	비중	26.7	26.9	27.5	27.7	28.6	29.3	30.6	31.3	32.2	
총 취업자수	70,637	71,394	72,085	73,025	73,740	74,432	75,200	75,825	76,400	0.99	

자료 :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p.130

고용현황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먼저 1998년 이후 2002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건설업으로 연평균 4.0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연평균 2.59% 증가하였고, 반면 농림축산어업, 광업, 제조업 등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어업이 32,487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의 4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서비스업이 18,244만 명으로 24.7%, 제조업이 8,307만 명으로 11.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WTO/GATS의 분류와 같이 전기·가스·수도 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

여 분류하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30.4%로 확대된다. 서비스 산업의 세부 분야별 통계를 보면 2002년 기준으로 기타 서비스가 6,24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8.5%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서 도·소매 및 요식업이 4,969만 명으로 6.7%의 비중을, 운수창고·우편 및 통신업이 2,084만 명으로 2.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분야는 사회서비스업이 6.05%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동산업이 5.89%, 기타 서비스가 5.2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2-18. 중국의 산업별 고용현황 (1998년~2002년)

(단위 : 만 명, %)

항 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평균 성장률
	인원	비중									
농림축산어업	33,232	47.0	33,493	46.9	33,355	46.3	32,974	45.2	32,487	44.1	-0.56
광업	721	1.0	667	0.9	597	0.8	561	0.8	558	0.8	-6.14
제조업	8,319	11.8	8,109	11.4	8,043	11.2	8,083	11.1	8,307	11.3	-0.02
전기·가스·수도 사업	283	0.4	285	0.4	284	0.4	288	0.4	290	0.4	0.61
건설업	3,327	4.7	3,412	4.8	3,552	4.9	3,669	5.0	3,893	5.3	4.01
서비스업	16,481	23.3	16,525	23.1	17,147	23.8	17,477	23.9	18,244	24.7	2.59
지질탐사수자원관리	116	0.2	111	0.2	110	0.2	105	0.1	98	0.1	-4.11
운수창고·우편 및 통신	2,000	2.8	2,022	2.8	2,029	2.8	2,037	2.8	2,084	2.8	1.04
도·소매·요식업	4,645	6.6	4,751	6.7	4,686	6.5	4,737	6.5	4,969	6.7	1.72
금융 및 보험업	314	0.4	328	0.5	327	0.5	336	0.5	340	0.5	2.02
부동산업	94	0.1	96	0.1	100	0.1	107	0.1	118	0.2	5.89
사회서비스업	868	1.2	923	1.3	921	1.3	976	1.3	1,094	1.5	6.05
보건·스포츠·사회복지	478	0.7	482	0.7	488	0.7	493	0.7	493	0.7	0.78
교육·문화·예술·라디오·영화·방송	1,573	2.2	1,568	2.2	1,565	2.2	1,568	2.1	1,565	2.1	-0.13
과학조사·과학기술 서비스	178	0.3	173	0.2	174	0.2	165	0.2	163	0.2	-2.15
국가·정당·기관 및 사회단체	1,097	1.6	1,102	1.5	1,104	1.5	1,101	1.5	1,075	1.5	-0.50
기타	5,118	7.2	4,969	7.0	5,643	7.8	5,852	8.0	6,245	8.5	5.27
분류불명	8,274	11.7	8,903	12.5	9,107	12.6	9,973	13.7	9,961	13.5	4.82
총 취업자수	70,637	100.0	71,394	100.0	72,085	100.0	73,025	100.0	73,740	100.0	1.08

주 :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p.131

중국의 산업구조별 고용 통계와 산업별 고용 통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과거 중국의 통계작성 방식의 한계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의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어 각 기간 동안의 수치를 이용한 산업별 통계치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문별 수치의 상대적 비율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논문에 삽입하였다. 또한 산업별 고용현황 통계에 있어 부문별 분류가 조정되어 2003년도의 통계치 부터는 2002년까지와는 다른 분류방법이 적용되어 통계수치가 나타나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은 2002년까지의 통계와는 다르게 변경된 산업분류가 적용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중국의 총 취업자 수의 현황을 보면 2003년 10,970만 명, 2004년 11,099만 명, 2005년 11,404만 명, 2006년 11,71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취업자 수는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현재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는 농림축산어업이 435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의 3.7%, 광산업이 530만 명으로 4.5%, 제조업이 3,352만 명으로 28.6%,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303만 명으로 2.6%, 건설업이 989만 명으로 8.4%, 서비스업이 6,105만 명으로 52.1%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변경된 분류에 따른 통계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와 서비스업의 고용자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산업분류 방법과 통계수치 집계과정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세부 분야에서는 2006년 현재 교육 서비스가 1,504만 명으로 1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서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이 1,266만 명으로 10.8%, 위생·사회보안 및 사회복지업이 525만 명으로 4.5%, 도매 및 소매업이 516만 명으로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업 8.6%, 정보전송·컴퓨터·소프트웨어 서비스가 5.8%, 수자원·환경·공공시설 관리업이 2.7% 순으로 기록되었다.

표 2-19. 중국의 산업 부문별 고용현황 (2003년~2006년)

(단위 : 만 명, %)

항 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성장률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농림축산어업	485	4.4	466	4.2	446	3.9	435	3.7	-3.5
광산업	488	4.5	501	4.5	509	4.5	530	4.5	2.8
제조업	2,981	27.2	3051	27.5	3211	28.2	3,352	28.6	4.0
전기·가스·수도 사업	298	2.7	301	2.7	300	2.6	303	2.6	0.5
건설업	834	7.6	541	4.9	927	8.1	989	8.4	14.3
서비스업	5,885	53.6	5,939	53.5	6,011	52.7	6,105	52.1	1.2
운수·창고·우편업	637	5.8	632	5.7	614	5.4	613	5.2	-1.3
정보전송컴퓨터 서비스소프트웨어	117	1.1	124	1.1	130	1.1	138	1.2	5.8
도매 및 소매업	628	5.7	587	5.3	544	4.8	516	4.4	-6.4
숙박 및 요식업	172	1.6	177	1.6	181	1.6	184	1.6	2.2
금융업	353	3.2	356	3.2	359	3.2	367	3.1	1.3
부동산업	120	1.1	133	1.2	147	1.3	154	1.3	8.6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84	1.7	194	1.8	219	1.9	237	2.0	8.9
과학연구,기술서비스 및 지적탐사업	222	2.0	222	2.0	228	2.0	236	2.0	2.0
수자원·환경·공공시설 관리업	173	1.6	176	1.6	180	1.6	187	1.6	2.7
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53	0.5	54	0.5	54	0.5	57	0.5	2.4
교육	1,443	13.2	1,467	13.2	1,483	13.0	1,504	12.8	1.4
위생,사회보안 및 사회복지업	486	4.4	495	4.5	509	4.5	525	4.5	2.6
문화체육 및 엔터테인먼트업	128	1.2	123	1.1	123	1.1	122	1.0	-1.4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	1,171	10.7	1,199	10.8	1,241	10.9	1,266	10.8	2.6
총 취업자수	10,970	100.0	11,099	100.0	11,404	100.0	11,713	100.0	2.2

주 :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자료 :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p.135-137

2)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도 IMF의 BOP 통계의 수출입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중국의 서비스 수출은 1222.1억 달러, 서비스 수입은 1301.1억 달러로 약

79억 달러의 서비스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입 규모면에서는 한국의 약 2배에 가까운 기록을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후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히 2001년 WTO 가입 후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서비스 수출측면에서 중국의 서비스 무역규모의 확대를 보면 1998년에 2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33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서비스 무역의 규모면에서 한국을 앞서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 규모는 더욱 급증하여 2004년 624.3억 달러, 2006년 920억 달러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다. 1998년의 서비스 무역 규모와 2007년의 서비스 무역 규모를 비교하면 같은 기간 2.5배 정도 성장한 한국과 달리 10년 만에 5배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앞 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007년 현재 서비스 무역에 있어 중국은 수출국으로 세계 7위, 수입국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무역이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하였지만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액은 상품수출액의 약 10%에 불과하며,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도 총 GDP의 약 40% 정도에 그쳐 평균 70%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선진국들에 비하여 아직까지 경제의 서비스화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8년 27.8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후 적자폭은 점차 증가하여 2005년 93.9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이후 2006년, 2007년에는 적자폭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분야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운송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4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06년 133.5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기까지 계속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2007년에는 약간 줄어들어 119.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운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등 사용료 분야에서 높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보험 서비스에서도 높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달리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운송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적자기조와는 반대로 여행 서비스에서는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흑자폭은 2006년 96.3억 달러를 기록하기 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 74.5억 달러 흑자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 그 비중은 1998년에는 여행이 52.7%로 가장 높고 운송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는 각각 9.6%, 37.6%에 머물렀으나, 운송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07년에는 기타 서비스가 43.9%로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운송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각각 25.6%와 30.5%의 수출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 2-20. 중국의 서비스 무역 현황 (BOP 기준)

(단위 : 억 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전체	239.0 (100.0)	266.7 (100.0)	-27.8	262.5 (100.0)	315.9 (100.0)	-53.4	304.3 (100.0)	360.3 (100.0)	-56.0	333.3 (100.0)	392.7 (100.0)	-59.3	397.4 (100.0)	465.3 (100.0)	-67.8
운송 서비스	23.0 (9.6)	67.6 (25.4)	-44.6	24.2 (9.2)	79.0 (25.0)	-54.8	36.7 (12.1)	104.0 (28.9)	-67.3	46.4 (13.9)	113.3 (28.8)	-66.9	57.2 (14.4)	136.1 (29.3)	-78.9
여객운송	6.3 (266)	7.4 (2.8)	-1.1	9.1 (3.5)	7.6 (2.4)	1.5	10.9 (3.6)	10.5 (2.9)	0.3	12.1 (3.6)	10.8 (2.8)	1.3	13.6 (3.4)	13.6 (2.9)	-0.0
화물운송	12.2 (5.1)	55.2 (20.7)	-43.0	10.0 (3.8)	64.8 (20.5)	-54.7	18.3 (6.0)	87.1 (24.2)	-68.8	23.6 (7.1)	93.8 (23.9)	-70.2	30.9 (7.8)	114.7 (24.7)	-83.8
기타 운송	4.5 (1.9)	5.0 (1.9)	-0.5	5.1 (1.9)	6.6 (2.1)	-1.6	7.6 (2.5)	6.4 (1.8)	1.2	10.6 (3.2)	8.6 (2.2)	2.0	12.7 (3.2)	7.8 (1.7)	4.9
여행	126.0 (52.7)	92.1 (34.5)	34.0	141.0 (53.7)	108.6 (34.4)	32.3	162.3 (53.3)	131.1 (36.4)	31.2	177.9 (53.4)	139.1 (35.4)	38.8	203.9 (51.3)	154.0 (33.1)	49.9
기타 서비스	89.9 (37.6)	107.0 (40.1)	-17.1	97.3 (37.1)	128.3 (40.6)	-31.0	105.3 (34.6)	125.2 (34.8)	-19.9	109.1 (32.7)	140.3 (35.7)	-31.3	136.4 (34.3)	175.2 (37.7)	-38.8
통신	8.2 (3.4)	2.1 (0.8)	6.1	5.9 (2.2)	1.9 (0.6)	4.0	13.5 (4.4)	2.4 (0.7)	11.0	2.7 (0.8)	3.3 (0.8)	-0.6	5.5 (1.4)	4.7 (1.0)	0.8
건설	5.9 (2.5)	11.2 (4.2)	-5.3	9.9 (3.8)	15.4 (4.9)	-5.6	6.0 (2.0)	9.9 (2.8)	-3.9	8.3 (2.5)	8.5 (2.2)	-0.2	12.5 (3.1)	9.6 (2.1)	2.8
보험	3.8 (1.6)	17.6 (6.6)	-13.7	2.0 (0.8)	19.2 (6.1)	-17.2	1.1 (0.4)	24.7 (6.9)	-23.6	2.3 (0.7)	27.1 (6.9)	-24.8	2.1 (0.5)	32.5 (7.0)	-30.4
금융	0.3 (0.1)	1.6 (0.6)	-1.4	1.1 (0.4)	1.7 (0.5)	-0.6	0.8 (0.3)	1.0 (0.3)	-0.2	1.0 (0.3)	0.8 (0.2)	0.2	0.5 (0.1)	0.9 (0.2)	-0.4
컴퓨터 및 정보	1.3 (0.6)	3.3 (1.2)	-2.0	2.7 (1.0)	2.2 (0.7)	0.4	3.6 (1.2)	2.7 (0.7)	0.9	4.6 (1.4)	3.5 (0.9)	1.2	6.4 (1.6)	11.3 (2.4)	-4.9
특허권 등 사용료	0.6 (0.3)	4.2 (1.6)	-3.6	0.8 (0.3)	7.9 (2.5)	-7.2	0.8 (0.3)	12.8 (3.6)	-12.0	1.1 (0.3)	19.4 (4.9)	-18.3	1.3 (0.3)	31.1 (6.7)	-29.8
기타 사업 서비스	69.4 (29.0)	64.6 (24.2)	4.8	74.1 (28.2)	73.3 (23.2)	0.8	76.6 (25.2)	69.6 (19.3)	7.0	84.5 (25.3)	75.0 (19.1)	9.4	104.2 (26.2)	79.6 (17.1)	24.6
개인문화 오락	0.2 (0.1)	0.4 (0.1)	-0.2	0.1 (0.0)	0.3 (0.1)	-0.3	0.1 (0.0)	0.4 (0.1)	-0.3	0.3 (0.1)	0.5 (0.1)	-0.2	0.3 (0.1)	1.0 (0.2)	-0.7
정부 서비스	0.2 (0.1)	2.1 (0.8)	-1.9	0.8 (0.3)	6.2 (2.0)	-5.4	2.8 (0.9)	1.7 (0.5)	1.1	4.3 (1.3)	2.4 (0.6)	2.0	3.6 (0.9)	4.5 (1.0)	-0.9

주 : () 안의 값은 서비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표 2-20. 계속

(단위 : 억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전체	467.3 (100.0)	553.1 (100.0)	-85.7	624.3 (100.0)	721.3 (100.0)	-97.0	744.0 (100.0)	838.0 (100.0)	-93.9	920.0 (100.0)	1008.3 (100.0)	-88.3	1222.1 (100.0)	1301.1 (100.0)	-79.0
운송 서비스	79.1 (16.9)	182.3 (33.0)	-103.3	120.7 (19.3)	245.4 (34.0)	-124.8	154.3 (20.7)	284.5 (33.9)	-130.2	210.2 (22.8)	343.7 (34.1)	-133.5	313.2 (25.6)	432.7 (33.3)	-119.5
여객운송	13.0 (2.8)	15.3 (2.8)	-2.3	20.2 (3.2)	22.1 (3.1)	-2.0	25.5 (3.4)	29.6 (3.5)	-4.1	31.8 (3.5)	39.2 (3.9)	-7.4	38.9 (3.2)	34.8 (2.7)	4.1
화물운송	49.5 (10.6)	159.4 (28.8)	-109.9	81.2 (13.0)	212.7 (29.5)	-131.5	106.8 (14.4)	244.4 (29.2)	-137.6	151.0 (16.4)	293.8 (29.1)	-142.8	240.9 (19.7)	382.0 (29.4)	-141.2
기타 운송	16.5 (3.5)	7.7 (1.4)	8.9	19.3 (3.1)	10.6 (1.5)	8.7	22.0 (3.0)	10.6 (1.3)	11.4	27.3 (3.0)	10.7 (1.1)	16.7	33.5 (2.7)	15.9 (1.2)	17.5
여행	174.1 (37.2)	151.9 (27.5)	22.2	257.4 (41.2)	191.5 (26.5)	65.9	293.0 (39.4)	217.6 (26.0)	75.4	339.5 (36.9)	243.2 (24.1)	96.3	372.3 (30.5)	297.9 (22.9)	74.5
기타 서비스	214.2 (45.8)	218.9 (39.6)	-4.7	246.3 (39.4)	284.4 (39.4)	-38.1	296.8 (39.9)	335.9 (40.1)	-39.1	370.4 (40.3)	421.4 (41.8)	-51.1	536.5 (43.9)	570.5 (43.9)	-34.0
통신	6.4 (1.4)	4.3 (0.8)	2.1	4.4 (0.7)	4.7 (0.7)	-0.3	4.9 (0.7)	6.0 (0.7)	-1.2	7.4 (0.8)	7.6 (0.8)	-0.3	11.7 (1.0)	10.8 (0.8)	0.9
건설	12.9 (2.8)	11.8 (2.1)	1.1	14.7 (2.4)	13.4 (1.9)	1.3	25.9 (3.5)	16.2 (1.9)	9.7	27.5 (3.0)	20.5 (2.0)	7.0	53.8 (4.4)	29.1 (2.2)	24.7
보험	3.1 (0.7)	45.6 (8.3)	-42.5	3.8 (0.6)	61.2 (8.5)	-57.4	5.5 (0.7)	72.0 (8.6)	-66.5	5.5 (0.6)	88.3 (8.8)	-82.8	9.0 (0.7)	106.6 (8.2)	-97.6
금융	1.5 (0.3)	2.3 (0.4)	-0.8	0.9 (0.2)	1.4 (0.2)	-0.4	1.5 (0.2)	1.6 (0.2)	-0.1	1.5 (0.2)	8.9 (0.9)	-7.5	2.3 (0.2)	5.6 (0.4)	-3.3
컴퓨터 및 정보	11.0 (2.4)	10.4 (1.9)	0.7	16.4 (2.6)	12.5 (1.7)	3.8	18.4 (2.5)	16.2 (1.9)	2.2	29.6 (3.2)	17.4 (1.7)	12.2	43.4 (3.6)	22.1 (1.7)	21.4
특허권 등 사용료	1.1 (0.2)	35.5 (6.4)	-34.4	2.4 (0.4)	45.0 (6.2)	-42.6	1.6 (0.2)	53.2 (6.4)	-51.6	2.0 (0.2)	66.3 (6.6)	-64.3	3.4 (0.3)	81.9 (6.3)	-78.5
기타 사업 서비스	174.3 (37.3)	103.7 (18.8)	70.6	199.5 (32.0)	139.1 (19.3)	60.4	232.8 (31.3)	162.9 (19.4)	70.0	289.7 (31.5)	206.1 (20.4)	83.7	404.1 (33.1)	304.3 (23.4)	99.8
개인문화 오락	0.3 (0.1)	0.7 (0.1)	-0.4	0.4 (0.1)	1.8 (0.2)	-1.3	1.3 (0.2)	1.5 (0.2)	-0.2	1.4 (0.1)	1.2 (0.1)	0.2	3.2 (0.3)	1.5 (0.1)	1.6
정부 서비스	3.6 (0.8)	4.5 (0.8)	-1.0	3.8 (0.6)	5.3 (0.7)	-1.5	4.9 (0.7)	6.2 (0.7)	-1.3	5.8 (0.6)	5.1 (0.5)	0.7	5.5 (0.5)	8.6 (0.7)	-3.0

주 : () 안의 값은 서비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 <http://www.imfstatistics.org/bop/>

제3장.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제1절.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의 방법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위하여 서비스 각 부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양국이 각각 어느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한·중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추진이나 서비스 협정의 체결, 또는 한·중 FTA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의 협상시 어느 국가가 어느 부문에서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지, 나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가짐으로써 협상에 있어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 상호간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 직접적인 경쟁력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한·중 양국간의 직접적인 서비스 무역 통계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IMF의 국제수지통계(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를 활용하여 비교검토 할 수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세계 서비스 무역의 수출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 수치를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대용치(Proxy)로 보아 양국간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비교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MF의 1997년~2006년까지 10년간의 BOP 통계수치로 양국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TSI) 및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추출하여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평가하며, TSI 및 RCA 지수와 함께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함께 고려하여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 무역특화지수(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는 특정한 업종이나 상품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순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Index)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정 업종 또는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해당 업종 또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특정 업종 또는 상품의 순수출액이 해당 업종 또는 상품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3-1)$$

TSI_{ij} :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수출액

M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수입액

TSI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지수가 -1 이면 완전수입특화, 0 이면 비교우위중립적인 상태, +1 이면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TSI를 국제경쟁력 지수로 해석하면 이 지수가 양의 값($0 \sim +1$)을 가질 때 해당 업종 또는 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음의 값($-1 \sim 0$)을 가질 때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 지수는 특정상품의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지수로서 특정 상품이나 산업의 비교우위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국제경쟁력을 단순 시장점유율로 비교할 경우 경제규모를 달리하는 국가들간의 비교에는 적절치 않다. 이에 RCA 지수는 국가별 시장점유율과 상품별(업종별)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들간에도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RCA 지수는 특정국이 특정상품을 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이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가정에

서 출발한다. RCA 지수는 특정국의 특정상품에 대한 세계시장 점유율을 해당국의 전체 상품에 대한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시장에서 해당국의 “특정상품 수출점유율”을 “전체 상품 수출점유율”로 나누어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j국의 i상품(산업)에 대한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CA_{ij} = \frac{(X_{ij}/X_{iw})}{(X_j/X_w)} \quad (3-2)$$

RCA_{ij} : 일정기간중 상품 i 무역에서 j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X_w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의 전세계 총수출

X_{iw} : 일정기간중 상품 i 의 전세계 총수출

X_j : 일정기간중 전체 상품의 j국의 대세계 수출

X_{ij} : 일정기간중 상품 i 의 j국의 대세계 수출

RCA 지수는 0 이상 양의 값을 가지며, 1을 기준으로 RCA 지수가 1보다 클 때(RCA > 1) j국은 i상품(산업)의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1보다 작을 때(RCA < 1)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RCA 지수가 1 이상이면 해당 국가는 해당 상품(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고, 1보다 작으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RCA 지수는 TSI(무역특화지수)가 가지는 값과는 달리 1을 기준으로 영(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RCA 지수 또한 TSI와 같이 -1에서 +1까지 대칭적인 값을 가지도록 변형을 가하여 변형된 RCA 지수, 즉 RSCA(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RSCA_{ij} = \frac{RCA_{ij} - 1}{RCA_{ij} + 1} \quad (3-3)$$

본 논문에서는 RCA 지수와 함께 TSI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어, TSI와

동일한 구간의 값을 가지는 동시에 지수의 대칭성을 유도한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지수를 활용한다.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에서는 RSCA 지수가 정(+)의 값(RSCA > 0)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음(-)의 값(RSCA < 0)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3. 국제시장점유율(IMS)

일국의 특정 상품(업종)의 수출입액이 특정 상품(업종)의 세계시장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출경쟁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함으로 국제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수출액만을 고려한다. 이에 일국의 특정 상품(업종)의 국제경쟁력이 높을수록 국제시장 전체의 해당 상품(업종) 총수출액에서 해당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바꿔 말하면 국제시장점유율(IMS)이 높을수록 해당국은 해당 상품(업종)의 수출에 있어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IMS_{ij} = \frac{X_{ij}}{X_{iw}} \times 100 (\%) \quad (3-4)$$

IMS_{ij} :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X_{ij} : 일정기간중 j 국가의 i 상품 대세계 총수출액

X_{iw} : 일정기간중 i 상품 전세계 총수출액

그러나 특정 상품(업종)에 대한 특정국의 국제경쟁력 평가를 국제시장점유율(IMS)을 통한 수출경쟁력으로 판단하는 경우 절대적 수치인 각국의 경제규모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경쟁력 평가와 비교우위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시 TSI와 RSCA 지수를 주요 지표로 삼고 IMS와 수출증가율 수치에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부여한다.

제2절.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IMF의 BOP통계에서 제공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등 10개 부문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국제경쟁력은 앞 절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대용치(Proxy)로 하여 간접적인 비교방법으로 분석한다. IMF의 BOP통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무역의 부문별 통계의 경우 총 11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정부서비스 부문의 경우 상업적인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논문의 비교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조사대상 기간(1997년~2006년)의 연도별 국제시장점유율(IMS), 무역특화지수(TSI),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를 산출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TSI와 RSCA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이 때 한국과 중국의 TSI 및 RSCA 지수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간의 비교와 함께 양국의 대세계 국제경쟁력 수준평가를 위하여 선진 5개국(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수치도 함께 제시한다.

또한, 조사대상 기간의 TSI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값에 의한 비교평가는 최근 연도의 서비스 무역 추세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 동일한 가중치(0.1)를 가지는 단순평균이므로 비교평가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조사대상 기간의 중위연도인 2001년 및 2002년에 대하여 평균가중치 0.1을 부여하고 기타 연도에 대하여는 최근 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대칭적 가중치 부여를 통해 10년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또한 최근 3년(2004~2006년)의 평균과 최종 연도인 2006년의 수치도 함께 고려하여 최근 추세를 더욱 고려하는 비교분석을 실행하며,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부문별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 부문별 비교시에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의 값을 제시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10년 가중평균값이 국제경쟁력 평가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보아 다음 절에서는 10년 가중평균값으로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표 3-1. 연도별 부여 가중치

연 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가중치	0.06	0.07	0.08	0.09	0.1	0.1	0.11	0.12	0.13	0.14	1

1. 운송서비스 부문

운송서비스는 한국의 서비스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운송서비스 TSI는 양수(+)인 0.055로 중국(-0.241)보다 크게 앞서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RSCA 지수에서도 2006년 기준 한국의 운송서비스 RSCA 지수는 0.406으로 중국(0.02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3-2. 한·중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3.478	3.254	3.567	3.972	3.856	3.709	4.248	4.459	4.190	4.195
	중국	0.934	0.733	0.753	1.065	1.356	1.605	1.955	2.389	2.707	3.416
TSI	한국	0.033	0.064	0.069	0.107	0.088	0.078	0.116	0.121	0.085	0.055
	중국	-0.542	-0.492	-0.531	-0.478	-0.419	-0.408	-0.395	-0.341	-0.297	-0.241
RSCA	한국	0.288	0.279	0.319	0.329	0.340	0.365	0.419	0.417	0.405	0.406
	중국	-0.316	-0.401	-0.415	-0.304	-0.233	-0.201	-0.116	-0.068	-0.038	0.02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10년 평균 수치에 있어서도 한국의 운송서비스 TSI는 0.082, 10년 가중평균 0.084로 양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수(-)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0.414, -0.392)과 비교하였을 때 수출경쟁력이 크게 앞서고 있다. 선진 5개국과 비교해도 한국만 유일하게 양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은 운송서비스 부문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TSI 및 RSCA 지수 모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수(-)를 보이던 중국의 RSCA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에는 양수(+)를 기록하였다. 운송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한국은 12.2%인데 반해 중국은 23.6%를 기록하여 중국의 운송서비스 수출경쟁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한·중·선진 5개국 운송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082	0.357	0.084	-0.368	0.087	0.409	0.055	0.406	12.2
중국	-0.414	-0.207	-0.392	-0.174	-0.293	-0.028	-0.241	0.022	23.6
프랑스	-0.010	0.017	-0.018	0.017	-0.072	0.022	-0.079	0.031	4.2
독일	-0.096	0.028	-0.096	0.027	-0.084	0.025	-0.100	0.021	8.0
일본	-0.129	0.216	-0.122	0.215	-0.089	0.190	-0.064	0.190	6.0
영국	-0.099	-0.184	-0.097	-0.191	-0.070	-0.207	-0.089	-0.260	6.4
미국	-0.117	-0.145	-0.129	-0.149	-0.165	-0.160	-0.151	-0.158	4.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2. 여행 부문

여행서비스 부문은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문으로 그 적자폭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여행부문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자폭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여행부문 TSI(-0.530)는 음수(-)로 중국(0.165)에 비해

수출경쟁력 열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SCA 지수에서도 한국(-0.385)은 중국(0.171)에 비교하여 열위에 머무르고 있다.

표 3-4. 한·중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1.111	1.602	1.529	1.471	1.406	1.237	1.001	0.951	0.847	0.787
	중국	2.835	2.922	3.152	3.493	3.920	4.247	3.253	4.035	4.275	4.614
TSI	한국	-0.193	0.331	0.167	-0.021	-0.088	-0.276	-0.307	-0.341	-0.453	-0.530
	중국	0.195	0.156	0.130	0.106	0.122	0.139	0.068	0.147	0.148	0.165
RSCA	한국	-0.268	-0.068	-0.093	-0.153	-0.149	-0.165	-0.269	-0.317	-0.353	-0.385
	중국	0.224	0.260	0.267	0.272	0.285	0.275	0.137	0.192	0.188	0.17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5. 한·중·선진 5개국 여행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171	-0.222	-0.221	-0.241	-0.441	-0.352	-0.530	-0.385	2.7
중국	0.138	0.227	0.136	0.220	0.153	0.184	0.165	0.171	13.7
프랑스	0.228	0.117	0.225	0.127	0.199	0.160	0.196	0.170	5.4
독일	-0.468	-0.186	-0.460	-0.187	-0.421	-0.193	-0.385	-0.192	6.7
일본	-0.680	-0.597	-0.654	-0.577	-0.523	-0.464	-0.521	-0.567	14.5
영국	-0.279	-0.272	-0.294	-0.282	-0.319	-0.303	-0.303	-0.288	5.2
미국	0.175	0.009	0.171	0.004	0.159	-0.017	0.163	-0.025	2.9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한국의 경우 TSI의 10년 평균(-0.171), 10년 가중평균(-0.221), 최근 3년 평균(-0.441), 2006년(-0.530)의 수치를 비교하여 판단할 때 수출경쟁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RSCA 지수의 경우도 10년 평균(-0.222), 10년 가중평균(-0.241), 최근 3년 평균(-0.352), 2006년

(-0.385)의 수치로 종합하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TSI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0.138, 0.227), 10년 가중평균(0.136, 0.22), 최근 3년 평균(0.153, 0.184), 2006년(0.165, 0.171)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양수(+)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이 2.7%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은 13.7%로 한국의 비교열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 5개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한국과 독일, 일본, 영국이 비교열위에, 중국과 프랑스, 미국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통신 부문

통신부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2006년 기준 TSI(-0.224, -0.314) 및 RSCA 지수(-0.017, -0.509)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 한·중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2.462	2.212	1.316	1.181	1.163	1.099	0.833	0.900	0.766	0.925
	중국	1.027	2.762	1.942	4.105	0.792	1.599	1.558	0.888	0.839	1.063
TSI	한국	-0.141	-0.267	-0.257	-0.233	-0.302	-0.289	-0.340	-0.175	-0.271	-0.224
	중국	-0.032	0.596	0.507	0.695	-0.092	0.078	0.198	-0.035	-0.109	-0.017
RSCA	한국	0.123	0.093	-0.166	-0.258	-0.241	-0.222	-0.352	-0.342	-0.397	-0.314
	중국	-0.273	0.234	0.032	0.345	-0.467	-0.203	-0.226	-0.510	-0.554	-0.509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하지만 중국의 경우 2003년까지는 대체로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수출경쟁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0년 평균 TSI(0.179)와 10년 가중평균 TSI(0.143)는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양국의 통신서비스의 수출입액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연평균증가율 또한 한국이 2.3%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은 35.8%로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⁷⁾

선진 5개국과의 비교평가지 영국이 10년 평균과 최근의 TSI 및 RSCA 지수 모두 양수(+)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수출입은 우편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발신국이 수신국으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입 금액만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3-7. 한·중·선진 5개국 통신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250	-0.208	-0.253	-0.244	-0.223	-0.351	-0.224	-0.314	2.3
중국	0.179	-0.213	0.143	-0.263	-0.054	-0.524	-0.017	-0.509	35.8
프랑스	0.109	-0.071	0.132	-0.027	0.247	0.107	0.278	0.097	21.0
독일	-0.245	-0.009	-0.238	-0.013	-0.177	-0.008	-0.166	-0.008	9.6
일본	-0.175	-0.378	-0.179	-0.437	-0.209	-0.704	-0.254	-0.738	-9.7
영국	0.004	0.063	0.017	0.079	0.058	0.150	0.033	0.155	17.2
미국	-0.101	-0.154	-0.075	-0.167	0.003	-0.216	0.043	-0.165	9.8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4. 건설 부문

2006년 기준 한·중 양국은 모두 건설부문에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수출금액은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¹⁸⁾ 한국의 TSI(0.951)은 양수(+)로 중국(0.146) 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RSCA 지

17) BOP 통계(2008년)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2007년 기준 통신서비스 수출입액은 한국의 수출액 및 수입액이 5.7억 달러, 9.3억 달러, 중국이 11.7억 달러, 10.8억 달러로 중국의 수출금액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다.

18) BOP 통계(2008년)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2007년 기준 건설서비스 수출입액은 한국의 수출액 및 수입액이 1.4억 달러, 0.2억 달러, 중국이 53.8억 달러, 29.1억 달러로 중국의 수출입 금액이 한국보다 50배 이상 많다.

수에서는 한국(-0.777)은 음수(+)를 가지며 중국(0.169) 보다 훨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 한·중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n.a.	0.014	0.030	0.100	0.273	0.125	0.103	0.231	0.213	0.223
	중국	1.521	1.540	2.824	2.072	2.773	3.978	3.579	3.421	5.000	4.596
TSI	한국	n.a.	-0.085	0.333	0.296	0.688	0.250	0.462	0.930	0.897	0.951
	중국	-0.344	-0.307	-0.220	-0.246	-0.010	0.128	0.043	0.046	0.231	0.146
RSCA	한국	n.a.	-0.985	-0.968	-0.905	-0.749	-0.864	-0.888	-0.776	-0.785	-0.777
	중국	-0.083	-0.054	0.215	0.018	0.120	0.245	0.184	0.111	0.262	0.169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한국의 경우 TSI는 10년 평균(0.525), 10년 가중평균(0.553), 최근 3년 평균(0.926), 2006년(0.951)의 수치 모두 양수(+)를 가지며 특히 최근 수치가 더욱 높아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RSCA 지수에서는 10년 평균(-0.855), 10년 가중평균(-0.791), 최근 3년 평균(-0.779), 2006년(-0.777)의 수치 모두 음수(-)를 가지며 0보다 -1에 가까운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RSCA 지수상으로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 TSI의 10년 평균(-0.053), 10년 가중평균(-0.009)의 수치만 음수(-)를 가지고 TSI의 최근 3년 평균(0.141)과 2006년(0.169)의 수치는 양수(+)를 가지며, RSCA 지수의 경우는 모두 양수를 나타내고 있어 TSI와 RSCA 지수를 종합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건설부문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건설서비스 부문의 수출입 금액이 매우 작아 지수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은 중국(24.0%) 보다 한국(74.3%)이 더욱 앞서고 있어 향후 경쟁력의 강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선진 5개국의 건설 부문과 비교할 때 영국과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TSI에서는 양수(+)를 가지고 RSCA 지수는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

일, 일본의 경우 TSI와 RSCA 지수 모두 양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3-9. 한·중·선진 5개국 건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525	-0.855	0.553	-0.791	0.926	-0.779	0.951	-0.777	74.3
중국	-0.053	0.119	-0.009	0.138	0.141	0.181	0.146	0.169	24.0
프랑스	0.329	0.263	0.333	0.252	0.359	0.198	0.402	0.215	2.2
독일	0.035	0.442	0.064	0.454	0.187	0.490	0.243	0.505	10.6
일본	0.163	0.579	0.165	0.573	0.188	0.556	0.183	0.565	6.4
영국	0.323	-0.714	0.301	-0.703	0.181	-0.619	0.132	-0.537	24.7
미국	0.689	-0.314	0.677	-0.316	0.668	-0.314	0.508	-0.260	9.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5. 보험 부문



보험서비스 부문에서 한·중 양국은 모두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TSI와 RSCA 지수도 한·중 양국 모두 비교대상 기간(1997년~2006년)동안 계속적으로 음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두 나라 모두 보험서비스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무역적자의 규모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매우 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¹⁹⁾ 보험 부문의 수출액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약 3배 정도의 금액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입액은 중국이 한국의 수입액 보다 10배 이상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적자의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SI와 RSCA 지수의 한·중간 비교시 TSI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RSCA 지수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

19) BOP 통계(2008년)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2007년 기준 보험서비스 수출입액은 한국의 수출액 및 수입액이 3.2억 달러, 11.2억 달러, 중국이 9.0억 달러, 106.6억 달러로 수입금액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10배 가까이 많으며 무역적자 규모도 한국은 8.0억 달러, 중국은 97.6억 달러로 중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한국의 무역적자 규모의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다. 선진 5개국의 보험서비스 부문 TSI 및 RSCA 지수의 값을 보면 영국만 유일하게 TSI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0.639, 0.309), 10년 가중평균(0.626, 0.279), 최근 3년 평균(0.532, 0.113), 2006년(0.589,0161) 수치 모두가 양수(+)를 나타내고 있어 보험서비스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표 3-10. 한·중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0.008	0.199	0.172	0.267	0.217	0.086	0.065	0.255	0.354	0.453
	중국	0.714	1.468	0.733	0.423	0.821	0.488	0.594	0.700	1.149	0.906
TSI	한국	-1.025	-0.466	-2.450	-0.364	-0.723	-0.878	-0.840	-0.537	-0.625	-0.514
	중국	-0.715	-0.641	-0.808	-0.916	-0.845	-0.879	-0.872	-0.883	-0.858	-0.883
RSCA	한국	-1.009	-0.805	-0.829	-0.765	-0.795	-0.905	-0.928	-0.756	-0.667	-0.593
	중국	-0.431	-0.078	-0.426	-0.650	-0.453	-0.664	-0.612	-0.593	-0.436	-0.566

주 : 음의 수출의 경우 국내 유입된 보험료 수입보다 해외 보상금 지출이 더 많은 경우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11. 한·중·선진 5개국 보험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²⁰⁾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842	-0.805	-0.793	-0.785	-0.559	-0.672	-0.514	-0.593	-243.4
중국	-0.830	-0.491	-0.844	-0.510	-0.875	-0.531	-0.883	-0.566	28.6
프랑스	0.035	-0.262	-0.013	-0.293	-0.350	-0.464	-0.480	-0.535	2.5
독일	0.027	0.025	0.037	0.028	-0.118	-0.059	0.208	-0.028	60.2
일본	-0.813	-0.785	-0.775	-0.740	-0.461	-0.336	-0.488	-0.230	-56.0
영국	0.639	0.309	0.626	0.279	0.532	0.113	0.589	0.161	16.9
미국	-0.564	-0.166	-0.575	-0.138	-0.585	0.000	-0.575	0.044	20.8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20)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음의 수출을 가진 연도가 있어 연평균증가율이 음수로 나타나는 한계가 있음.

6. 금융 부문

2006년 한국의 금융 부문 TSI(0.646) 수치는 중국(-0.719) 보다 크게 앞서고 있어 한국이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RSCA 지수에서도 한국(-0.200)이 중국(-0.95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TSI나 RSCA 지수 측면 모두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RSCA 수치의 경우 한국 또한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에 비하여서는 경쟁우위를 가지나 여타국들과 비교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 한·중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0.253	0.207	0.552	0.697	0.550	0.763	0.663	0.791	1.007	1.182
	중국	0.043	0.038	0.128	0.077	0.102	0.056	0.144	0.069	0.089	0.068
TSI	한국	0.365	0.143	0.440	0.573	0.731	0.818	0.747	0.791	0.751	0.646
	중국	-0.847	-0.716	-0.201	-0.112	0.125	-0.276	-0.210	-0.190	-0.047	-0.719
RSCA	한국	-0.767	-0.798	-0.539	-0.484	-0.551	-0.386	-0.448	-0.398	-0.276	-0.200
	중국	-0.953	-0.956	-0.869	-0.926	-0.910	-0.955	-0.890	-0.951	-0.941	-0.959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한국의 경우 TSI는 10년 평균(0.601), 10년 가중평균(0.639), 최근 3년 평균(0.729), 2006년(0.646)의 수치 모두 양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RSCA 지수의 경우 10년 평균(-0.485), 10년 가중평균(-0.443), 최근 3년 평균(-0.291), 2006년(-0.200) 수치 모두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TSI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0.319, -0.931), 10년 가중평균(-0.295, -0.932), 최근 3년 평균(-0.319, -0.951), 2006년(-0.719, -0.959) 수치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은 금융 부문에서 비교열위를 가지며 특히 RSCA 지수의 경우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 부문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 5개국과의 비교시 금융 부문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일본과 독일이 한국과 같이 TSI에서는 양수(+), RSCA 지수에서는 음수(-)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TSI와 RSCA 지수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한국이 46.6%, 중국이 52.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한·중·선진 5개국 금융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601	-0.485	0.639	-0.443	0.729	-0.291	0.646	-0.200	46.6
중국	-0.319	-0.931	-0.295	-0.932	-0.319	-0.951	-0.719	-0.959	52.7
프랑스	-0.166	-0.605	-0.199	-0.629	-0.326	-0.699	-0.467	-0.754	-2.5
독일	0.234	-0.211	0.225	-0.220	0.190	-0.239	0.197	-0.248	12.8
일본	0.142	-0.199	0.185	-0.187	0.300	-0.166	0.346	-0.186	10.4
영국	0.661	0.508	0.657	0.507	0.658	0.510	0.661	0.494	15.6
미국	0.586	0.014	0.594	0.036	0.622	0.144	0.538	0.181	20.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7. 컴퓨터 및 정보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의 경우 한국은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다. 수출규모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10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컴퓨터 및 정보 부문 TSI(-0.413)는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수(+)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TSI(0.260) 보다 낮아 중국이 이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SCA 지수에서는 한국(-0.806)과 중국(-0.180)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RSCA 지수에서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두 지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10년 평균치와 최근

수치를 비교하였을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의 연평균증가율도 한국은 72.2%, 중국은 50.4%로 선진 5개국에 비해 높은 편으로 한국과 중국은 향후 이 부문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4. 한·중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0.017	0.016	0.011	0.023	0.031	0.034	0.040	0.026	0.053	0.190
	중국	0.453	0.467	0.767	0.779	0.902	1.097	1.484	1.712	1.711	2.269
TSI	한국	-0.907	-0.905	-0.893	-0.793	-0.731	-0.729	-0.636	-0.722	-0.524	-0.413
	중국	-0.467	-0.426	0.084	0.146	0.144	-0.279	0.031	0.133	0.063	0.260
RSCA	한국	-0.982	-0.983	-0.988	-0.977	-0.967	-0.962	-0.955	-0.972	-0.942	-0.806
	중국	-0.598	-0.572	-0.408	-0.439	-0.415	-0.375	-0.249	-0.230	-0.262	-0.180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15. 한·중·선진 5개국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725	-0.953	-0.689	-0.945	-0.553	-0.906	-0.413	-0.806	72.2
중국	-0.031	-0.373	0.012	-0.341	0.152	-0.224	0.260	-0.180	50.4
프랑스	0.030	-0.455	0.023	-0.467	-0.005	-0.509	-0.008	-0.499	15.1
독일	-0.084	0.189	-0.068	0.172	0.002	0.101	0.022	0.060	20.2
일본	-0.378	-0.292	-0.379	-0.361	-0.416	-0.634	-0.527	-0.698	-1.5
영국	0.506	0.131	0.497	0.125	0.470	0.126	0.444	0.089	23.4
미국	0.480	-0.246	0.446	-0.271	0.298	-0.356	-0.136	-0.316	15.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8.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 부문은 한국과 중국 모두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TSI의 10년 평균(-0.574), 10년 가중평균(-0.538), 최근 3년 평균(-0.403), 2006년(-0.389) 수치가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고, RSCA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평균(-0.307), 10년 가중평균(-0.258), 최근 3년 평균(-0.097), 2006년(-0.117) 수치가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TSI의 10년 평균(-0.880), 10년 가중평균(-0.893), 최근 3년 평균(-0.928), 2006년(-0.940) 수치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0.896), 10년 가중평균(-0.897), 최근 3년 평균(-0.901), 2006년(-0.918) 수치 모두 음수(-)를 나타내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6. 한·중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0.413	0.400	0.631	0.867	1.197	1.001	1.397	1.593	1.441	1.401
	중국	0.090	0.097	0.104	0.101	0.143	0.159	0.114	0.202	0.119	0.140
TSI	한국	-0.811	-0.802	-0.708	-0.648	-0.536	-0.565	-0.463	-0.410	-0.410	-0.389
	중국	-0.816	-0.739	-0.827	-0.882	-0.893	-0.918	-0.941	-0.900	-0.943	-0.940
RSCA	한국	-0.646	-0.642	-0.490	-0.396	-0.227	-0.265	-0.109	-0.070	-0.104	-0.117
	중국	-0.904	-0.893	-0.892	-0.904	-0.877	-0.876	-0.912	-0.862	-0.922	-0.918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한·중 양국간의 TSI와 RSCA 지수의 비교시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문의 수출은 한국이 많은데 반해 수입은 중국이 많아 상대적으로 더욱 중국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 부문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이 29.9%로 선진 5개국과 비교하였을때 성장률이 높은 편이며, TSI 및 RSCA 지수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 부문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한·중·선진 5개국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574	-0.307	-0.538	-0.258	-0.403	-0.097	-0.389	-0.117	29.9
중국	-0.880	-0.896	-0.893	-0.897	-0.928	-0.901	-0.940	-0.918	21.8
프랑스	0.140	-0.172	0.177	-0.147	0.299	-0.033	0.306	-0.025	13.6
독일	-0.179	-0.140	-0.160	-0.147	-0.067	-0.160	-0.142	-0.241	6.7
일본	-0.007	0.490	0.013	0.499	0.097	0.521	0.129	0.535	12.0
영국	0.115	0.132	0.127	0.125	0.177	0.098	0.199	0.079	8.2
미국	0.465	0.501	0.458	0.505	0.456	0.524	0.504	0.528	8.5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9.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한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중국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무역적자폭과 중국의 무역흑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규모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중국은 2006년 기준 이 부문의 TSI가 0.169로 한국(-0.254) 보다 비교우위에 있다. RSCA 지수도 한국이 -0.057, 중국이 0.142로 중국이 한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TSI의 수치가 10년 평균 -0.177, 10년 가중평균 -0.196, 최근 3년 평균 -0.245, 2006년 -0.254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SCA 지수에서도 각각 -0.004, -0.020, -0.068, -0.057로 TSI와 마찬가지로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선진 5개국과 비교시 연평균증가율이 3.9%에 그쳐 이 부문의 경쟁력 향상의 가능성도 현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중국은 TSI의 수치가 10년 평균 0.122, 10년 가중평균 0.132, 최근 3년 평균 0.175, 2006년 0.169로 나타나고 있고, RSCA 지수도 10년 평균 0.130, 10년 가중평균 0.131, 최근 3년 평균 0.148, 2006년 0.142로 경쟁력

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 5개국과 비교시 연평균증가율이 17.1%로 높은 편이라 향후 이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8. 한·중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2.789	2.075	1.867	2.170	1.853	1.601	1.504	1.534	1.575	1.582
	중국	2.669	2.188	2.292	2.309	2.451	2.777	3.920	3.768	3.891	4.352
TSI	한국	0.037	-0.079	-0.157	-0.178	-0.182	-0.231	-0.246	-0.237	-0.245	-0.254
	중국	0.162	0.036	0.005	0.048	0.059	0.134	0.254	0.178	0.177	0.169
RSCA	한국	0.183	0.061	0.007	0.040	-0.013	-0.037	-0.073	-0.089	-0.059	-0.057
	중국	0.195	0.121	0.114	0.072	0.058	0.070	0.228	0.159	0.142	0.14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19. 한·중·선진 5개국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177	-0.004	-0.196	-0.020	-0.245	-0.068	-0.254	-0.057	3.9
중국	0.122	0.130	0.132	0.131	0.175	0.148	0.169	0.142	17.1
프랑스	0.078	0.027	0.067	0.021	0.033	-0.009	0.007	-0.006	3.1
독일	-0.057	0.100	-0.044	0.102	0.050	0.125	0.101	0.145	10.9
일본	-0.135	0.059	-0.115	0.050	-0.009	0.020	0.015	0.050	4.3
영국	0.344	0.104	0.339	0.106	0.327	0.093	0.298	0.089	12.1
미국	0.203	-0.137	0.199	-0.132	0.191	-0.139	0.196	0.671	7.6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10. 개인·문화·오락 부문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에만 중국이 무역흑자를 나타내었다. 이 부문의 수출입 규모면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TSI는 -0.291로 음수(-)값을 가지고 중국은 0.062로 양수(+)값을 가져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06년 한해에만 중국이 이 부문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TSI의 값이 양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TSI의 한국 10년 평균(-0.444), 10년 가중평균(-0.406), 최근 3년 평균(-0.355)과 중국 10년 평균(-0.406), 10년 가중평균(-0.365), 최근 3년 평균(-0.210)을 비교하였을때도 중국이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RSCA 지수의 경우 한국은 10년 평균이 -0.590, 10년 가중평균이 -0.541, 최근 3년 평균이 -0.395, 2006년 수치가 -0.243로 나타나 중국의 10년 평균(-0.881), 10년 가중평균(-0.869), 최근 3년 평균(-0.805), 2006년(-0.781) 수치와 비교할 때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SI에서의 중국우위 보다 RSCA 지수에서의 한국우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 5개국과 비교하였을때도 한국의 연평균증가율이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0. 한·중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0.038	0.082	0.161	0.658	0.720	0.844	0.308	0.436	0.904	1.078
	중국	0.076	0.088	0.039	0.054	0.146	0.136	0.135	0.140	0.452	0.402
TSI	한국	-0.930	-0.734	-0.682	-0.079	-0.197	-0.210	-0.548	-0.492	-0.281	-0.291
	중국	-0.630	-0.444	-0.659	-0.536	-0.282	-0.528	-0.351	-0.622	-0.070	0.062
RSCA	한국	-0.961	-0.914	-0.839	-0.506	-0.451	-0.343	-0.699	-0.616	-0.325	-0.243
	중국	-0.919	-0.903	-0.958	-0.947	-0.875	-0.894	-0.896	-0.903	-0.732	-0.78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21. 한·중·선진 5개국 개인·문화·오락 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444	-0.590	-0.406	-0.541	-0.355	-0.395	-0.291	-0.243	94.5
중국	-0.406	-0.881	-0.365	-0.869	-0.210	-0.805	0.062	-0.781	52.9
프랑스	-0.133	0.175	-0.136	0.169	-0.137	0.162	-0.213	0.064	3.0
독일	-0.698	-0.444	-0.670	-0.412	-0.567	-0.321	-0.673	-0.418	26.3
일본	-0.731	-0.661	-0.752	-0.699	-0.840	-0.857	-0.806	-0.821	16.2
영국	0.326	0.139	0.345	0.151	0.428	0.209	0.428	0.161	13.2
미국	0.914	0.253	0.904	0.264	0.830	0.290	0.836	0.400	17.5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제3절.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평가

1.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비교분석

4절에서는 앞 절에서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종합하여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평가한다. IMF의 BOP통계에서 서비스 무역은 운송서비스 부문, 여행 부문, 기타 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되어 통계가 작성되고 있고, 기타 서비스는 다시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오락·문화, 정부서비스 부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한·중 서비스 무역의 종합평가에서도 정부서비스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중 서비스 무역의 종합평가에 앞서 서비스 무역 부문별 수출액의 합인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의 수출액(정부서비스 부문 포함)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본다. 우선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 국제시장점유율(IMS)을 보면 2000년까지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이 더 많아 한국의 IMS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해인 2001년에 중국의 서비스 수출액이 한국을 넘어서면

서 역전되었고, 이후 중국의 국제시장점유율(IMS)은 한국을 계속 앞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IMS는 2000년에 최고치를 보이고 난 뒤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0년(2.004)과 2006년(1.772)의 수치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조사대상기간 중 1998년(1.716)부터 국제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한국을 앞지른 뒤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고, 2006년(3.267)에는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제시장에서 매우 큰 교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상품무역과 함께, 아직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도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의 TSI와 RSCA 지수는 한국과 중국 모두 지속적으로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중 양국 모두 서비스 무역 수지에서 계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상품무역에서는 두 나라가 무역흑자국으로 수출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3-22. 한·중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연도별)

항 목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IMS	한국	1.924	1.836	1.842	2.004	1.901	1.725	1.739	1.835	1.774	1.772
	중국	1.797	1.716	1.823	1.997	2.181	2.414	2.466	2.735	2.924	3.267
TSI	한국	-0.057	0.020	-0.012	-0.045	-0.062	-0.126	-0.101	-0.088	-0.131	-0.160
	중국	-0.065	-0.055	-0.092	-0.084	-0.082	-0.079	-0.084	-0.072	-0.059	-0.046
RSCA	한국	-0.106	-0.114	-0.137	-0.134	-0.110	-0.162	-0.172	-0.179	-0.187	-0.186
	중국	-0.249	-0.277	-0.263	-0.280	-0.286	-0.307	-0.355	-0.357	-0.379	-0.374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한국 TSI의 10년 평균(-0.076), 10년 가중평균(-0.087), 최근 3년 평균(-0.126), 2006년(-0.160) 수치는 중국의 TSI의 10년 평균(-0.072), 10년 가중평균(-0.071), 최근 3년 평균(-0.059), 2006년(-0.046)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TSI의 비교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열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RSCA 지수에서는 한국의 10년 평균(-0.149), 10년 가중평균(-0.155), 최근 3년 평균(-0.184), 2006년(-0.186) 수치가 중국의 10년 평균(-0.313), 10년 가중평균(-0.323), 최근 3년 평균(-0.370), 2006년(-0.374) 수치보다 모두 앞서고 있어 RSCA 수치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 5개국과의 비교시 프랑스, 영국, 미국의 경우 TSI와 RSCA 지수 모두에서 양수(+)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TSI에서는 양수(+)를, RSCA 지수에서는 음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TSI와 RSCA 지수 모두 음수(-)를 보이고 있어 한·중 양국 모두 선진 5개국에 비하여 아직까지 서비스 무역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액의 연평균증가율에서 보듯이 중국의 경우 16.5%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보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이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한·중·선진 5개국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 경쟁력 비교 (평균값)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연평균 증가율 (%)
	TSI	RSCA	TSI	RSCA	TSI	RSCA	TSI	RSCA	
한국	-0.076	-0.149	-0.087	-0.155	-0.126	-0.184	-0.160	-0.186	8.3
중국	-0.072	-0.313	-0.071	-0.323	-0.059	-0.370	-0.046	-0.374	16.5
프랑스	0.624	0.038	0.620	0.038	0.601	0.041	0.603	0.042	4.4
독일	0.286	-0.182	0.303	-0.179	0.380	-0.166	0.429	-0.149	8.6
일본	0.425	-0.156	0.443	-0.149	0.519	-0.106	0.627	-0.087	6.2
영국	0.542	0.229	0.544	0.239	0.562	0.285	0.575	0.286	10.2
미국	0.655	0.183	0.659	0.187	0.682	0.208	0.697	0.216	6.3

주 : 연평균 증가율은 1997년~2006년 수출액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2. 국제경쟁력 산출지수 비교

앞 절에서의 서비스 무역 10개 부문별 비교분석의 결과와 서비스 무역 전체 부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중간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평가한다. 각 부문별, 그리고 전체부문의 TSI와 RSCA 지수의 수치를 비교하여 서비스 무역에 있어 한국과 중국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비교분석시 TSI와 RSCA 지수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점유율(IMS)과 수출증가율 또한 고려한다. 그러나 국제시장점유율(IMS)의 경우 국가의 경제규모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특정 상품(업종)의 상대적인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있어 TSI와 RSCA 지수를 비교의 지표로 사용하며 IMS와 수출증가율은 어디까지나 비교분석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한다.

표 3-24. 한·중 서비스 무역 IMS 및 수출증가율 비교

항 목	10년 평균(IMS)		연평균 증가율(IMS)		연평균 증가율(수출액)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서비스 전체	1.84	2.33	0.14	7.79	8.27	16.51
운송서비스	3.89	1.69	4.43	14.61	12.18	23.56
여 행	1.19	3.68	-2.66	7.42	2.72	13.69
통 신	1.29	1.66	-8.24	22.91	2.28	35.79
건 설	0.15	3.31	71.25	17.66	74.34	23.97
보 험	0.21	0.80	-239.24	19.53	-243.38	28.59
금 용	0.67	0.08	25.93	31.47	46.58	52.71
컴퓨터 및 정보	0.04	1.16	40.09	21.06	72.24	50.44
특허권 등 사용료	1.03	0.13	18.65	10.04	29.90	21.82
기타 사업서비스	1.86	3.06	-4.65	7.25	3.91	17.11
개인·문화·오락	0.52	0.17	72.46	41.87	94.51	52.93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25. 한·중 서비스 무역 TSI 비교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서비스 전체	-0.076	-0.072	-0.087	-0.071	-0.126	-0.059	-0.160	-0.046
운송서비스	0.082	-0.414	0.084	-0.392	0.087	-0.293	0.055	-0.241
여 행	-0.171	0.138	-0.221	0.136	-0.441	0.153	-0.530	0.165
통 신	-0.250	0.179	-0.253	0.143	-0.223	-0.054	-0.224	-0.017
건 설	0.525	-0.053	0.553	-0.009	0.926	0.141	0.951	0.146
보 험	-0.842	-0.830	-0.793	-0.844	-0.559	-0.875	-0.514	-0.883
금 용	0.601	-0.319	0.639	-0.295	0.729	-0.319	0.646	-0.719
컴퓨터 및 정보	-0.725	-0.031	-0.689	0.012	-0.553	0.152	-0.413	0.260
특허권 등 사용료	-0.574	-0.880	-0.538	-0.893	-0.403	-0.928	-0.389	-0.940
기타 사업서비스	-0.177	0.122	-0.196	0.132	-0.245	0.175	-0.254	0.169
개인·문화·오락	-0.444	-0.406	-0.406	-0.365	-0.355	-0.210	-0.291	0.062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표 3-26. 한·중 서비스 무역 RSCA 지수 비교

항 목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서비스 전체	-0.149	-0.313	-0.155	-0.323	-0.184	-0.370	-0.186	-0.374
운송서비스	0.357	-0.207	0.368	-0.174	0.409	-0.028	0.406	0.022
여 행	-0.222	0.227	-0.241	0.220	-0.352	0.184	-0.385	0.171
통 신	-0.208	-0.213	-0.244	-0.263	-0.351	-0.524	-0.314	-0.509
건 설	-0.855	0.119	-0.791	0.138	-0.779	0.181	-0.777	0.169
보 험	-0.805	-0.491	-0.785	-0.510	-0.627	-0.531	-0.593	-0.566
금 용	-0.485	-0.931	-0.443	-0.932	-0.291	-0.951	-0.200	-0.959
컴퓨터 및 정보	-0.953	-0.373	-0.945	-0.341	-0.906	-0.224	-0.806	-0.180
특허권 등 사용료	-0.307	-0.896	-0.258	-0.897	-0.097	-0.901	-0.117	-0.918
기타 사업서비스	-0.004	0.130	-0.020	0.131	-0.068	0.148	-0.057	0.142
개인·문화·오락	-0.590	-0.881	-0.541	-0.869	-0.395	-0.805	-0.243	-0.781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3.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비교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양국의 서비스 무역 부문별 및 전체부문에 대한 TSI와 RSCA 지수의 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 수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TSI와 RSCA 지수의 평가에 보조하기 위하여 국제시장점유율(IMS)의 10년 평균과 연평균 증가율 및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산출하였다.

각 부문별로 4가지(10년 평균, 10년 가중평균, 최근 3년 평균, 2006년)의 수치를 제시하되 10년 가중평균 수치가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과 중국의 국제경쟁력 비교에 있어 10년 가중평균 수치로 종합평가한다.

양국의 TSI와 RSCA 지수의 비교를 통한 평가시 양국의 수치 차이가 지수 범위의 10% 이내로 나타날 경우 경쟁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TSI와 RSCA 지수 모두 -1 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해당 지수 범위의 10%인 0.2이상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양국간 국제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RSCA 지수를 TSI의 수치보다 우선시하되 TSI와 RSCA 지수의 차이가 모두 0.2 이내에 머무르거나 TSI와 RSCA 지수의 결과가 상호 반대되는 경우에는 국제시장점유율(IMS)과 수출증가율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판단한다.

또한 IMS에 의한 비교시에도 양국간 IMS의 차이가 두 나라의 IMS 수치 중 더 낮은 수치의 IMS 값의 50% 이상이 되어야 IMS에 의한 비교우위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양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의 차이값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국가의 점유율 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제시장점유율로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평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한·중 서비스 무역 TSI 수치에 의한 비교평가 결과 서비스 무역의 10개 부문 중 한국은 운송서비스 부문, 건설 부문, 금융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중국은 여행 부문, 통신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부문과 개인·문화·오락 부문은 양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서비스 전체부문에 대하여서도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한·중 서비스 무역 TSI와 RSCA 지수 비교평가

항 목	TSI				RSCA			
	한국(A)	중국(B)	C= A-B	평가	한국(D)	중국(E)	F= D-E	평가
서비스 전체	-0.087	-0.071	0.016	경합	-0.155	-0.323	0.168	경합
운송서비스	0.084	-0.392	0.476	한국우위	0.368	-0.174	0.542	한국우위
여 행	-0.221	0.136	0.357	중국우위	-0.241	0.220	0.461	중국우위
통 신	-0.253	0.143	0.396	중국우위	-0.244	-0.263	0.019	경합
건 설	0.553	-0.009	0.562	한국우위	-0.791	0.138	0.929	중국우위
보 험	-0.793	-0.844	0.051	경합	-0.785	-0.510	0.275	중국우위
금 융	0.639	-0.295	0.934	한국우위	-0.443	-0.932	0.489	한국우위
컴퓨터 및 정보	-0.689	0.012	0.701	중국우위	-0.945	-0.341	0.604	중국우위
특허권 등 사용료	-0.538	-0.893	0.355	한국우위	-0.258	-0.897	0.639	한국우위
기타 사업서비스	-0.196	0.132	0.328	중국우위	-0.020	0.131	0.151	경합
개인·문화·오락	-0.406	-0.365	0.041	경합	-0.541	-0.869	0.328	한국우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RSCA 지수에 의한 비교평가 결과는 한국이 운송서비스 부분, 금융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여행 부문, 건설 부문, 보험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RSCA 지수에서는 통신 부문과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이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전체 부문은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0.2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0.168의 차이에 그쳐 TSI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SI와 RSCA 지수에 의한 비교평가 결과, 먼저 서비스 전체부문에서는 RSCA 지수를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미미하게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차이값의 기준치 미달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운송서비스 부문과 금융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은 TSI와 RSCA 지수에서 모두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3개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한다. 여행 부문과 컴퓨터 및 정보 부문은 TSI와 RSCA 지수에서 모두 중국의 비교우위가 나타나 해당 2개 부문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역시 최종 평가한다.

TSI와 RSCA 지수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5개 부문의 경우 TSI와 RSCA 지수의 비교만으로 양국의 비교우위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 부문은 TSI에서 중국우위, RSCA 지수에서 경합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험 부문은 TSI에서 경합, RSCA 지수에서 중국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도 TSI는 중국우위, RSCA 지수에서는 경합,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TSI에서는 경합, RSCA 지수에서는 한국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즉, 통신 부문, 보험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3개 부문은 경합과 중국우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되 국제시장점유율(IMS)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경우 경합과 한국우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역시 IMS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검토한다. 그러나 이 검토에 있어 IMS의 비교에 의한 결과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이미 판단된 결과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판단된 비교우위가 확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IMS에서 경합으로 나타나더라도 우위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TSI와 RSCA 지수 모두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 전체부문과 TSI와 RSCA 지수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설 부문은 국제시장점유율(IMS)에 의한 평가로 최종 평가할 수 밖에 없다.

TSI와 RSCA 지수에 의해 비교우위를 최종 평가한 운송서비스 부문, 여행 부문, 금융 부문, 컴퓨터 및 정보 부문, 특허권 등 사용료 부문 등 5개 부문에서는 TSI 및 RSCA 지수와 함께 IMS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해당 5개 부문에서의 비교우위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TSI와 RSCA 지수의 비교에서 경합과 우위가 동시에 나타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통신 부문, 보험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3개 부문과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IMS에 의한 검토결과 통신 부문에서만 경합으로 나타나고 보험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개인·문화·오락 부문에서는 이미 판단한 비교우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대로 경합은 이미 판단한 비교우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신 부문, 보험 부문,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3개 부

문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문화·오락 부문은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한다.

TSI(한국우위)와 RSCA 지수(중국우위)에서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던 건설 부문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RSCA 지수에서 중국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IMS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국우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 부문의 경우 중국우위가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한다.

그러나 TSI와 RSCA 지수 모두에서 경합을 보이는 서비스 전체부문의 경우 IMS에서도 경합으로 나타나 서비스 전체부문의 국제경쟁력은 한국과 중국이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최종 평가한다. 다만, 연평균 수출증가율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이 8.27%, 중국이 16.51%를 나타내고 있어 성장률에 의한 국제경쟁력 비교우위 판단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28. 한·중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항 목	TSI	RSCA	10년 평균(IMS)				종합평가
			한국(G)	중국(H)	I= G-H	평가	
서비스 전체	경합	경합	1.84	2.33	0.49	경합	경합
운송서비스	한국우위	한국우위	3.89	1.69	2.20	한국우위	한국우위
여 행	중국우위	중국우위	1.19	3.68	2.49	중국우위	중국우위
통 신	중국우위	경합	1.29	1.66	0.37	경합	중국우위
건 설	한국우위	중국우위	0.15	3.31	3.16	중국우위	중국우위
보 험	경합	중국우위	0.21	0.80	0.59	중국우위	중국우위
금 용	한국우위	한국우위	0.67	0.08	0.59	한국우위	한국우위
컴퓨터 및 정보	중국우위	중국우위	0.04	1.16	1.12	중국우위	중국우위
특허권 등 사용료	한국우위	한국우위	1.03	0.13	0.90	한국우위	한국우위
기타 사업서비스	중국우위	경합	1.86	3.06	1.20	중국우위	중국우위
개인·문화·오락	경합	한국우위	0.52	0.17	0.35	한국우위	한국우위

자료 :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2008)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종합하면,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를 위하여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를 이용한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의 수출경쟁력과 서비스 무역 10개 부문에 대한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대

리변수(proxy)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운송서비스와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며, 여행과 통신, 건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6개 부문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에 대한 평가는 한·중 양국의 국제경쟁력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이 2개 더 많은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성장잠재력에 의한 비교우위 판단으로 중국의 최근 서비스 수출 급증에 힘입어 중국의 비교우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 비교우위 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가 각국의 대외지급능력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해당 통계에서 특히,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착오와 누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해석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과거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상품에 체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독립된 상품으로 공급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의 국제무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 무역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와 소비촉진 효과가 크고, 금융·보험 등 지식집약도가 높은 서비스 산업은 고전적인 산업에 비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이에 서비스 무역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는 곧 국민경제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발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서비스 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서비스 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부가가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무역적자의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세계의 서비스 수출국으로 중국은 7위, 한국은 18위에, 수입국으로 중국은 5위, 한국은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 양국은 재화무역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가 필요하지만, 양국 상호간의 서비스 무역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용치(Proxy)로 IMF의 국제수지(BOP) 통계를 이용하여 재화무역의 경쟁력 평가방법에 준하여,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TSI) 및 변형된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그리고 보조적 지표로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산출하여 서비스 무역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와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중국은 여행과 통신, 건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6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무역 전체에 대한 국제경쟁력에서는 한·중 양국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의 지표에 의한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판단하면 중국이 미미하게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한·중 양국에 있어 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한·중 양국간의 서비스 협정이나 FTA 등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세계 서비스무역 완전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준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열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호 비슷한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문화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다. 이에 양국이 상호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무역 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중 양국의 서비스 산업에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와 이러한 서비스가 결합된 양질의 상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양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어 국민후생이 증대될 것이며, 재화무역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보면, 적자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개방과 자유화가 아닌 무역장벽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만 한다면 이는 특정 서비스 부문의 독점적 가격을 보장하게 되어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후생을 훼손

하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투입재가 되는 산업에 있어서 중간재 투입가격의 상승으로 최종생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재화무역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서의 높은 국제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무역에서는 상대적 비교열위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상승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화무역에서의 국제경쟁력 비교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무역의 비교열위를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방안 중 한 가지가 한·중 양국간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자유화이다.

본 논문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무역 부문에 있어 상호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자유화의 추진을 가정하고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에 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한·중간 지역무역협정의 추진방안이나 협상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더 나은 논문이라 하겠으나, 한·중 양국간 서비스 무역에 대한 기초적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IMF의 BOP통계라는 간접적인 수치만으로 선부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라 판단하며, 양국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본 논문의 한계라 하겠다. 지역무역협정의 협상전략이나 추진방안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내법과 각종 규제, 무역장벽과 WTO 등의 다자간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자세, 서비스 산업별 세부현황과 정부의 시책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동시적 접근과 인식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로 생각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기성래, “서비스 무역의 공급형태와 통계”, 「지역발전연구」, 제5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원, 2001.01.
- 김민우,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원인과 대책”, 「한국은행 보고서」, 2008.09.
- 김미정, “중국 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 방안”, 「e-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1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6.03.30.
- 김순석, “WTO 서비스 무역규범 - 전문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 연구」, 제9권, 국제거래법학회, 2000.06.18.
- 김시중,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한중 FTA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7.12.
- 김영환,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05.15.
- 김우규, “서비스무역과 그 유형”,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02.
- 김주훈, 안상훈, 이재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6-01, 한국개발연구원, 2006.12.
- _____, 차문중,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2007.12.
- 김채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의 최혜국대우 및 그 문제점”, 「안암법학」, 제13호, 안암법학회, 2001.
- 라공우, “한·중 교역구조와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Trade Remedy Review」, 제30호,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2008.04.20.

- 박명섭역, 사자나미 요오코, 우라다 슈지로, 「서비스 무역 - 이론·현상·과제」, 서울: 비봉출판사, 1993.04.
- 박문서,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04.25.
- 박순찬, 강문성, “한·ASEAN FTA에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대외경제연구」, 제9권 제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06.
- _____, 박명호, “한·중·일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 CGE모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02.04.30.
- 박영기,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8.07.10.
- 박필재,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09.
- 서창배, “중국(中國)의 FTA 정책(政策)에 담긴 정치(政治),경제적(經濟的) 함의(含意)”,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한중사회과학학회, 2007.
- 서철원,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평가”, 「서울국제법연구」, 3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6.
- 서 현, “A Study on the Status and Causes of Growing Service Trade Deficit - Focused on Korean Tourism Industry”, 「통상정보연구」, 제9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03.27.
- 성일석,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 무역구조”, 「무역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5.
- 송기호, 「중국경제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2008.07.25.
- 양평섭, 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7.30

- 우희승,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12.
- 유일선,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미국의 개방압력”, 「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1992.08.01.
- 윤광운, 최종수, 노현수, 「최신 무역실무」, 서울: 삼영사, 2007.03.05
- 윤기관, 왕하, “중국 서비스무역의 장기발전 계획과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부문 투자기업의 대응전략”,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 윤상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비즈니스 기회”,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6.11.29.
- 윤창인,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30.
- 이남구, “서비스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6.11.06.
- 이성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0.01.
- 이재기, 「신중국경제론」, 서울: 형지사, 2008.01.20
- 이종원, 정홍열, 윤킴, Peter Robson, 「국제통합의 경제학」, 서울: 해남출판사, 1999.03.15.
- 이창재,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30.
- 이춘삼, 이재영, “서비스무역과 FTA”, 「산업경영연구」, 제29권 1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6.02.

-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정세와 정책」, 2007-05, 세종연구소, 2007.05.01.
- 이홍식, 왕윤중,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12.
- 정환우, 권도하, “중국공산당 제17차 당대회 이후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국제통상본부 아주팀, 2007.10.25.
- 하태정,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5.3.23.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8년 세계경제 및 국별 전망」, 2007.1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FT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2008.01.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보고 2006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7-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1.30.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8-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08.19.

외국문헌

- 中國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監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7*, China Statistics Press, 2007.09.24
- Aaditya Mattoo, Sacha Wunsch-Vincent, “Pre-Emptying Protectionism in Services: the GATS and Outsourcing”, Vol. 7 No. 4,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10.

Joscelyn Magdeleine, Andreas Maurer, “Measuring GATS Mode 4 Trade Flows”, Staff Working Paper ERSD-2008-05,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8.10.08.

Juan A. Marchetti,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Staff Working Paper ERSD-2004-06,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4.09.20.

Martin Roy, Juan Marchetti, Hoe Lim, “Services Liberalization in the New Generation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PTAs): How Much Further than the GATS?”, Staff Working Paper ERSD-2006-07,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World Trade Organization, 2006.09.

OECD,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trends in first quarter 2008*,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8.07.31

_____, *OECD in Figures 2007 Edition*,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_____, *Structure and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05.14

UNCTAD,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facts and figures 2008*, Geneva: United Nations, 2008.04.

_____, *Handbook of Statistics 2008*, Geneva: United Nations, 2008.

WTO, "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S/L/92, 2001.03.28.

_____,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8.

_____, *Measuring Trade in Servic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6.03.

_____,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1991.

_____, UNCTAD, ITC, *World Tariff Profiles 2008*,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8.

_____, *World Trade Report 2007*,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2007.

웹사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http://scholar.ndsl.kr/>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국제부흥은행(IBRD,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국제연합(UN), <http://www.un.org/>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http://www.unctad.org/>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국제통화기금 국제수지통계, <http://www.imfstatistics.org/bop/>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다음포털, <http://www.daum.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http://csf.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유럽연합(EU), <http://www.europa.eu/>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포스코경영연구소, <http://www.posri.re.kr/>
학위논문원문 공동이용협의회, <http://thesis.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index.jsp>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tri.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http://library.hhu.ac.kr/library/>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KOSIS(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rvic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by Kim, Young Hw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The service industry has been regarded as the one with low productivity, compared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it was characterized by the production with low level of a technical standard and its labor-intensity.

However, the importance of this industry begins to be newly recognized. That 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enable the commodity to be delivered at long distance. The services previously supplied at the market, with those embodied in goods, is now getting more separate from tangible goods.

Compared with the classic manufacturing industry, the service industry is highly value-added. And it also encourages the stable growth of national economy by stimulating other industry like manufacturing, creating jobs and promoting consumption.

The service trade in this context is of greater significance. Although the ratio of service trade over world trade is just 20%, the ratio of the

value-added which it creates is over 70%. Therefore i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When it comes to current balance, both of Korea and China enjoy the trade surplus in goods while both countries suffer trade deficit in service. This facts demonstrate that two countries have comparative disadvantage in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identify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in Korea and China, several indexes such a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IMS) was calculated. However, because the service trade statistic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so far measured, I can't help analyzing it by using the IMF's balance of payments (BOP) statistics as Prox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our sectors (Transportation, Financial services, Royalties & license fees and Personal-cultural-recreation), while Chin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six sector (Travel, Communication services, Construction services, Insurance services, Computer & information service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This facts will play a role as good references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f the negotiation between two countries for Free Trade Agreement is begun in the future. However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limited because the indirect data in service trade which means the share of Korean service trade and the share of Chinese service trade in the world market, not the servic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as used.